



가을
2024

통권 제6호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남포 도시공간과 일상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를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남포와 은재(殷載) 신석구 목사

남포의 문화유산

남포 출신의 인물

남포의 사람 사는 이야기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4 가을 통권 제6호

이번호 주제 : 남포(南浦)특별시



- 02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_ 김성태 (한국오피도어선교회 이사장)
- 09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 23 남포 도시공간과 일상_ 이시호 (송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30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_ 남근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36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_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 43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 (lamp의 일본어식 표기)_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
- 49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Cover Story

서해갯문은 남포특별시 시내의 서쪽 15km에 위치한 갯문으로 대동강의 물을 가두며 황해남도과 남포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랑,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4년 10월 8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撮影	概略	前科	系統	思想	年齢	姓名	氏名	住所	本籍
昭和四年十二月十日		大正九年十月保安法違反(依り懲役二年ニ處セラル)	故推察歴系	民族主義		殷 載	(政)	江原道鐵原郡鐵原市官前里一五〇番地	京畿道京畿府水原府六七番地



- 69 남포와 은재(殷載) 신석구 목사_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 77 남포의 문화유산_ 덕흥리 벽화고분, 수산리 벽화고분, 황룡산성
- 79 남포 출신의 인물_ 안창호, 조만식, 김창준, 하용조
- 82 남포의 음식_ 강서약수, 어복쟁반
- 83 남포의 사람 사는 이야기
- 89 언론에 비친 남포의 모습들_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남포 소식
- 95 남포의 각종 개발 소식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남포는 조선왕조 시대에 조운항으로 기능을 했으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남포항을 병참기지로 이용했으며, 승리한 이후에 이름을 진남포로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항만을 개발하였습니다. 일제는 1905년 남포항에 이사청을 개설하고, 일본뿐 아니라 각국의 조차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1915년에는 1만 톤 급의 배가 입출항할 수 있는 항만 부두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남포는 일본과 중국의 주요 항구로 해로가 연결되었으며, 일본의 오사카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는 경로도 있었습니다. 남포항은 대동강의 수문 기능도 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남포에서 평양까지 대동강을 이용하여 소형 기선이 운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는 1908년에 경의선을 개통하면서 지선으로 1910년에 평양과 남포를 운행하는 철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일제는 평안남도과 황해도의 무연탄을 비롯한 각종 부존자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각종 제련소, 제강소 및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을 이용한 중화학 공업단지를 군수기지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이용한 각종 식품 가공공장 and 제염소 및 방직 직물공장을 세움으로써 종합

산업단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된 후에 진남포는 다시 옛 이름인 남포로 불렸고, 공산화된 북한에서 일제가 조성한 종합산업단지의 기반에서 더욱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에 평양의 서부 일부 지역을 남포에 병합하면서 특급시에서 라선시와 함께 특별시로 승급을 시켰습니다. 남포는 평안남도의 강서군, 대안군, 온천군, 룡강군, 천리마군이 편입되면서 현재는 강서구역,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 룡강군, 온천군의 5개 구역과 2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까운 북한에서 평양(320만 인구) 다음으로 큰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1981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2000년에는 “청년 영웅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김일성의 지시로 건설이 된 서해갑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서해갑문은 3개의 갑실과 36개의 수문으로 구성이 되어서 5만 톤 급의 각종 선박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대동강과 재령강이 운하처럼 연결이 되어서 수로가 서해와 평양, 사리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남포를 관문도시 및 평양과 연결이 된 배

후 도시로서 경제특구와 수출가공 및 종합산업단지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당시 노태우 정부와 북한의 김일성 사이에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대우그룹은 남포에 95년에 의류생산 가공공장을 세웠습니다. 2004년에는 통일교 산하의 평화자동차 공장이 남포의 항구구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에서 대부분 중요 부품이 외부에서 가져와서 조립된 것이지만 북한 최초로 휘파람, 뼈꾸기, 존마 브랜드의 승용차가 생산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남북 해운합의서가 채택이 되어서 인천과 남포 간에 2~3천 톤 선적 화물선이 상호 왕래하여서 남한에서는 섬유, 화학, 전기, 전자제품 등과 북한에서는 각종 농수산물, 광물자원 등이 교역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와 김정일의 정상회담이 성립된 후에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항만개발 협정 등이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도에 북한 제일의 물류 중심 항으로서 남포항의 화물 하역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하였습니다.

평양이 북한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 권력의 중심 본부라고 하면 남포는 지리적으로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외곽도시이지만 서해와 연결된 항구도시이며 대동강으로 평양과 연결이 되어서 각종 물류의 집산지이며 외국 물품이 남포항을 통해서 평양 및 전국으로 공급되고, 경제특구로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남포의 인구는 평양 삼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시장이 27개나 존재하며, 북한이 자랑하며 북한산업의 모델로 선전하는 천리마 운동의 발원지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불리는 발원지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중국이 지원하여 세운 대안 친선 유리공장과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중화학공업, 어린이 제약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약공장, 건재 및 직물공장, 제2

경제위원회 산하의 각종 군수공장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남포항은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역을 하였고, 2019년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도 중국 및 기타의 나라 등과 제한되게 교역하며 육로는 봉쇄되었어도 해로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의 모든 교류는 2010년 5. 24조치 이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20년 한류 및 외국 문화 유입근절, 기독교의 영향을 염두에 둔 종교 및 자본주의 사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제정했고, 2021년에는 청년들에 대한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년 교양 보장법”과 그에 따른 한류의 모든 모방을 말투 및 글자표현에서 차단하려는 “평양 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더 나아가서 2023년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0차 전원회의에서 연속 두 번이나 한국을 동족이 아닌 가장 속적인 적대 국가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헌법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은 누구라도 한국을 동족이라고 부를 수 없고, 삼천리금수강산이나 8천만 동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원활할 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남포와의 교류는 계속 요원하기만 합니다. 한국과의 접촉은 단렸을지라도 남포항은 북한의 가장 큰 물류 중심 항으로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유일하게 물동량이 활발하고, 평양과 연관된 관문 도시로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남포에 언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으며, 남포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신앙 면모와 신앙 유산은 무엇이며 공산화된 이후에 남포의 신자들은 오늘날 어떻게 신앙인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와 신자들의 활동 내용이 있지만 남포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되게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을 언급하려 합니다.

1. 하나님의 선교전략으로서 남포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남포 지역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라는 용어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루푸스 앤더슨 등은 미국 인디안 원주민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벨코우프는 바울의 선교전략을 연구하면서 바울의 모든 선교활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선교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포의 선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1890년에 한국에 온 사무엘 모펏(마포삼열)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아편설라) 선교사와 함께 서울에서 평양과 의주를 방문했습니다. 1891년에는 네 번을 여행하면서 북쪽 지역의 선교기지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주변 지역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가 결정을 한 곳은 대동강을 통해 남포와 연결이 되고,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평양이었습니다. 의주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이었는데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백홍준과 서상륜이 고향인 의주로 와서 친구인 한석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한석진은 1891년 평양에서 모펏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펏 선교사는 1893년 동료인 그래함 리(이길함)와 윌리엄 스왈른(소안론) 선교사와 함께 평

양에 선교기지를 설립하는데 조사인 한석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석진은 조사로서 모펏 선교사를 도왔을 뿐 아니라 매서인으로 활동하면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특히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하였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일제 강점기 시기 나라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창호와 이승훈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안창호는 고향인 강서지역 탄모리로 내려와서 자신의 가정에서 1894년 탄모리교회를 세웠고, 또한 청산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계몽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인 점진학교를 세웠습니다. 남강 이승훈도 고향인 정주에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남포 지역의 교회 개척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방기창입니다. 방기창은 유학자로서 동학의 접주까지 지내다가 1893년 평양에서 모펏(마포삼열)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펏 선교사가 세운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면서 송인학교 교사를 하였고, 매서인이 되어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광범위하게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1901년에 길선주와 같이 장대현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방기창은 강서지역에 반석교회, 고창교회, 송호교회를 개척하였고, 남포 지역에는 노정교회, 예명교회, 룡강군의 룡강교회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1909년 남포 지역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득신학교, 득신유치원을 세웠고, 이것이 후에 남포 지역이 속한 평서노회에 의해서 득신고등성경학교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애국 애족하는 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힘을 다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득신고등성경학교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고등교육기관

에 입학할 수 없었던 젊은 신앙인들을 적극 수용하여 이들을 교육하는데 감리교 배덕영목사의 성화 신학교와 함께 열심히 힘썼습니다.

감리교회는 윌리엄 홀(가락 홀)과 로제타 셔우드(하락)부부가 평양에 1893~4년 정착한 이후 평양 중심으로 인근 강서, 남포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홀 선교사는 평양에 광성학교, 기독교병원, 남산현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세웠고, 광성학교는 초기 소수 인원의 소학교에서 시작하여 명문 교육기부로 발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초기 학생들 중에 강서 출신의 오석형, 이향선, 김낙선, 박관수, 조한수, 김재선, 주경조, 전용기, 조용순, 전삼덕, 리은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후에 남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삼덕은 여성으로서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보령군수를 지냈는데 고향인 강서군에 정착했습니다. 전삼덕은 평양까지 가서 남산현교회를 출석하였고, 1895년 윌리엄 스크랜톤(시란돈)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901년 59살 때 순회전도 사역을 하는 전도부인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 소녀매일학교를 세웠고, 함종 지역 중심으로 9개의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하였습니다. 1917년 75살 때 학동교회와 송덕학교를 세웠고, 강서와 남포지역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중에 1932년 89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홀 선교사는 1895년 순직하였는데 후임으로 윌리엄 노블(노보울) 선교사와 찰스 모리스(모리시) 선교사가 평양에 주재하면서 활동했습니다. 노블은 평양에 있으면서 강서, 남포까지 광범위한 순회 사역을 했으나 주로 평양 선교사역에 집중했고, 모리스는 영변을 비롯한 관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1914년 존 자카리아 무어(문요한) 선교사가 평양에 부임했는데 그의 주된 사역지는 남포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대동, 중화, 룡강, 강서, 순천, 진남포 등을 순회 사역하면서 관서 지역에 160여 교회와 30여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감리교회의 최초 남포 지역의 교회는 1897년에 세워진 비석리교회, 신흥리교회입니다. 감리교는 남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삼송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장로교의 남포 지역 교회 개척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1921년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남포 지역은 거의 90퍼센트가 평서노회 지역이었습니다. 평서노회는 진남포, 룡강, 강서, 평원군 서남부, 대동군 서남부의 약 60여개의 교회와 3,700명의 신자를 포함했습니다. 감리교회도 1930년 미국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합병을 하면서 한국에 3개의 연회를 두었는데 동부, 중부, 서부 연회입니다. 서부 연회 산하에는 평양, 영변, 진남포 지방회가 있는데 진남포 지방회는 진남포, 룡강, 삼화, 강서, 증산, 함종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당시 진남포 지방회에 속한 신자는 약 4,400명에 이르렀고, 한반도 전 감리 교인의 십분의 일을 점유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장로교나 감리교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은 지역은 남포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상인 계층이었으며 외부의 문물이나 사조에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시기에 애국, 애족의 마음이 강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교육과 계몽에 힘쓰는 신흥 세력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뿐 아니라 육영 사업과 병원설립에도 힘을 썼습니다.

성결교회도 서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설립 지역을 진남포로 정했지만 실패하다가 1929년 박정

훈 전도사와 전도부인 김옥현을 파송함으로 진남포 성결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결교회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 운영과 토착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목사들에 의해 1936년 분열이 되어서 성결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선교사 중심의 남쪽 성결교회와 다른 상당히 독자적인 교회를 북한 전역에 세워 나갔고, 진남포가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남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팻(마포삼열)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북한 지역으로 순회 선교사역을 하면서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개척한 서상륜, 백홍준의 고향인 의주 지역을 북한의 선교기지로 삼지 않고, 남포 지역을 포함한 평양을 선교기지로 삼은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모팻 선교사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의주 출신의 한석진이 백홍준, 서상륜을 통해 복음을 듣고, 모팻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모팻 선교사와 감리교의 홀 선교사가 평양 정착을 하는데 양반 가문 출신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한석진은 평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을 하였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강서 출신의 안창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주 오산학교를 세웠던 남강 이승훈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안창호는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미국에서 홍사단을 세웠습니다. 이승훈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의 33인 지도자 중의 한 분으로 기독교인 16명 중에 대표적 지도자로서 평생 신앙심을 가지고,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에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방기창은 황해

도 신천 출신으로 동학의 접주 지위까지 이룬 사람이었지만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하여 관서 지방의 전도인으로 임명이 되어서 남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석진과 같은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신흥 엘리트 세력과 긴밀한 교류를 나누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시아 내륙에서 계속 활동하려던 바울을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하나님은 빌립보의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그녀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주의 한석진이 평양에서 모팻 선교사와 홀 선교사의 정착을 도운 것과 보령군수의 정실부인으로 고귀한 신분이었던 전삼덕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강서의 자신의 집을 교회와 학교 부지로 내놓고, 평생 전도인의 삶을 살아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남포 지역의 교회는 지정학상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남포 지역의 교회와 신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교회를 섬기고, 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일제 말기에 남포 지역의 교회지도자와 신자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고,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서도 많은 순교자를 내며 공산화에 저항하던 교회와 신자였습니다. 이렇듯이 적대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남포 지역의 교인들은 힘에 넘치도록 교회 헌금을 하였고,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은 안창호, 안중근, 방기창처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강한 신

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믿음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였고, 주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조국광복을 염원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승화하여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남포 지역의 수많은 애국애족의 교회와 신자들은 지금 지상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교전략 속에서 남포 지역이 갖는 특수한 지리적 이점과 발전 속에서 루디아, 디모데, 야손, 한석진, 방기창, 전삼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배출하고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장막터를 넓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남포 지역 출신의 신앙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선지자적 해안과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제 강점기 일본의 불법한 식민 통치에 저항했으며,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구소련의 스탈린 군대의 횡포와 공산주의자들의 무도함과 잔혹함에 적극적으로 대항했습니다. 남포의 교회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강서지역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자발적으로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여 신앙인으로 귀의한 조만식은 평생 신앙인으로 살며 이승훈의 오산학교를 돕고, 조선물산장려운동을 거국적으로 하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남한으로 내려가서 활동하라는 여러 인사들의 권유를 물리치고, 북한 동족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공산화를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강서지역 출신으로 도산 안창호가 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활동을 하

며 전도인으로 사역하던 방기창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고향에 탄모리교회와 청산포교회를 세웠습니다. 안창호는 남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단기간에 무력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이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젊은 인재를 교육으로 양성하며 나라의 실력을 키우는 독립운동에 평생 매진했습니다. 그는 일제에 의해 감옥에서 1938년 순교했습니다.

장로교의 평서노회는 남포 지역의 독신성경고등학교를 통해서 조선 기독교연맹과 대치하고, 독신학교 교사 출신으로 김일성의 외종조부(6촌) 강랑욱과 그 추종자들이 독신고등성경학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저항하다 결국 대다수의 목회자가 월남하거나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서노회의 노회장인 조순천 목사는 1949년 12월 19일 평양 성화신학교 주최로 남산현교회에서 개최된 찬양 예배에 순서를 맡아서 참여한 후, 독신고등성경학교 교장으로, 당시 성화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배덕영 목사와 당시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 서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날 인민보안성의 체포를 당해 두 지도자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남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제거하려는 모략 속에서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이것이 1949년에 일어난 진남포 4.19 사건입니다. 국군이 1949년 5월 1일 북한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고, 남포의 목사들을 규합하여 일시에 체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유리교회의 신석구 목사, 비석리교회의 송영길 목사, 역량기교회의 김덕모 목사 등 48명이 체포당하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는 3.1 독립만세운동의 33인 지도자 중의 한 분으로 명망이 있는 연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회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민중을 위한다면서 민중을 핍박

하고, 공산 독재정치를 하며 구소련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당대의 북한 정치지도자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허정숙과 김두봉이 신석구 목사의 처형을 면하게 하고 10년형의 연도를 받게 하였으나 결국 신석구 목사는 전쟁 기간에 평양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남포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다수의 개신교 목사와 장로, 신자들은 카톨릭 신자인 안중근이 걸어갔던 무력투쟁의 노선이 아닌 신앙심을 중심으로 한 민족 자강을 위한 교육과 경제활동 및 독립운동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남포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교회 지도자의 신앙 유산과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대한 선지자적 해안은 북한의 남아있는 그루터기 지하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에게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헌신과 순교적 희생은 반드시 결실을 볼 것입니다.

3. 일제 강점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유와 협박은 남포 지역 교회의 연합과 상부상조,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의 신앙절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품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앞에 힘을 잃고 무력해졌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감리교 하디 선교사의 부흥 운동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했던 소알론 선교사와 감리교의 노블과 무어 선교사의 관서지역에서의 교회의 부흥 운동은 남포 지역의 교회들에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남포 지역의 평서노회 노회장이며 독신고등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조순천 목사는 평양 성화신학교 교장이었던 배덕영 목사와 북한 공산화에 적극 동조하며 참여하였던 강량욱, 박상순 등이 주도하였던 조선기독교연맹에 대항하여 공동의 투

쟁을 하다가 동시에 수감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장로교뿐 아니라 북한교회를 대표하여 조선민주당을 세웠던 조만식 장로와 감리교를 대표했던 원로 목사로서 존경을 받던 신석구 목사는 북한 공산화를 막으려고 서로 협력하던 중에 결국 두 분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목사들이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남아 있던 목회자들은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는 데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성결교의 비석리교회가 장로교와 감리교의 비석리교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2000년도 중엽에 장로교의 지하교회 지도자에게서 감리교의 지하교회 지도자와 성결교회 지도자를 소개하는 서신을 받고, 후에 이분들의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연합과 혹독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그리스도 사랑의 결속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이후에 감리교회의 지도자와 성결교회의 지도자에게서 그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목숨을 바쳐 보관하고 있었던 신앙 서적들과 『활천』 신앙 잡지 등을 그분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과 함께 북한에 남아있었던 교인들의 신앙 행전의 소식을 전달 받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아있는 신실한 교인들의 신앙 유산이 한국교회 전체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도록 이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교회와 교인들을 말살하려 해도 북한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시기에 저들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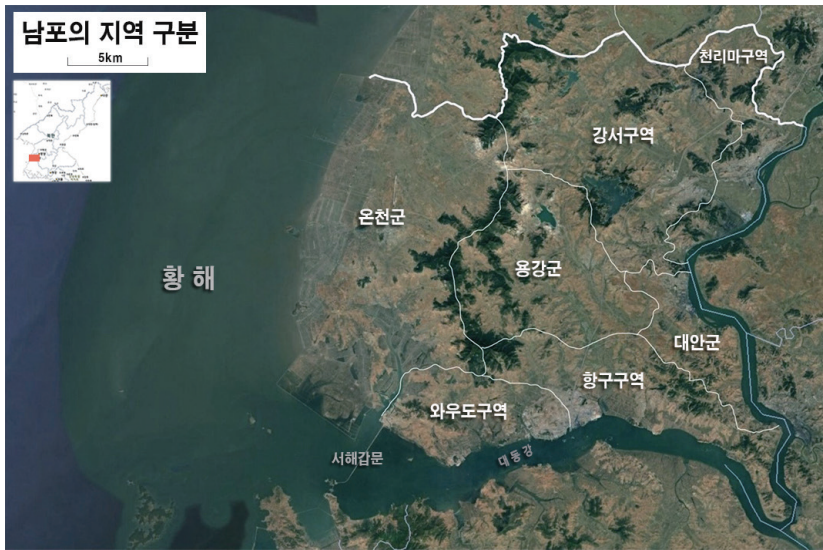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진남포항의 모습
(자료: 조선총독부 내무국, 『조선항만요람』; 참고: 이찬우, “서해를 잇는 항구도시 남포를 바라보다, 라이프인”)

남포는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북한 제2의 도시로 고대로부터 인접한 평양과 함께 발전해 온 도시이다. 평양과 남포에는 고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고인돌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출토되고 있는 고구려 왕실과 귀족의 유물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 중 하나인 평양-남포의 역사적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천리마 구역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세계 최고의 토목건축물로 알려진 서해갑문은 북한 현대사의 성과이자 자랑거리이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연안도시들의 급격한 발전은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남포가 항구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었으며, 남북교류의 활성화기 남포는 평양의 외항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UN제재에도 불구하고 남포항을 통하여 북한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남포의 발전과정과 공간구조를 정리하며 이후로 남포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전망할 것이다.

1. 남포의 개항과 국제화

남포의 옛 이름은 증남포(甑南浦)로 고려시대에는 서경(西京)의 삼화현(三和縣)에 속한 포구였다. 증남포라는 지명은 증산(甑山)의 남쪽에 위치한 포구라는 뜻에



남포특별시는 강서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 용강군, 온천군으로 구성된다.

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평안도는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사행길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남포는 평안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여 평안도의 발전 축에서 벗어난 지역이었고 조선후기 한때는 조운항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과 어업이 이루어지는 한산한 어촌이

었다.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에 의해 중국의 주요 항구도시에 개항장과 조차지가 설치되던 시기 남포는 중국의 다롄과 칭다오에 근접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일제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일본은 1892년에 군함을 파견하여 대동강과 남포시 일대를 조사한 후 그곳에 군사기지를 개발하였고 남포는 1894년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전진 기지가 된다. 일본은 1894년 8월 1일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7월 29일 남포에 상륙하여 평양을 거쳐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1894년 12월 28일 남포에 일본군 사령부와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1897년은 황해를 둘러싼 중국과 조선의 주요 도시들이 외세에 의해 격변을 겪은 해이다. 1897년 독일이 칭다오에 상륙하여 개항장과 조차지를 설치하였고, 대련에는 러시아에 의해 개항장과 조차지가 설치된다. 같은 해 10월 1일 대한제국에 의해 남포가 공식으로 개항한 직후 도시의 명칭이 일제에 의해 진남포(鎭南浦)로 개칭된다. 동시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남포는 1900년에는 조선인 591호 2,416명, 일본인 99호 339명, 외국인 25호 인구 171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가 되었다.

국제도시로 변모해 가던 남포는 청일전쟁과 을사조약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이전까지 일본의 이익선(利益線)은 부산과 목포에 머물렀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이익선을 평안도까지 확장하여 남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였으며 을사조약 직후 일제는 남포에 아예 이사청(理事廳)을 개설하여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남포항을 통한 무역액은 1897년 59,622원이었던 것이 1904년에는 3,564,444원으로 1907년에는 6,009,069원까지 성장한다. 특히 1904-1907년 남포의 무역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쟁 중 벌였던 사업과 사역으로 인해 돈이 돌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본인을 비롯

한 남포 주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한 것,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남포의 유통로가 발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¹⁾ 그러나 1908년 평양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개통하면서 평양 물류의 중심이 항로에서 철도로 옮겨가게 되고, 경의선의 노선에서 벗어난 남포항의 수출입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전까지 남포의 중심지는 북동쪽의 삼화면과 신흥리로 남포의 지도층 가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양반 가문인 안중근의 가정도 남포로 이주하여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사청 설치 이후 일제는 진남포 항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한다. 진남포의 행정구역은 항구 일대로 축소되어 각국 거류지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조선인 135호가 모두 항구 일대로 쫓겨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게 되어 이 지역이 남포의 신시가지가 되었다. 1911년 일제의 자료를 보면 일본, 러시아, 독일, 청나라, 영국, 미국, 이탈리아가 남포의 항구구역과 그 주변 신시가지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²⁾



일제강점기 남포의 시가지 (참고: 『望郷 朝鮮』日本, 国書刊行会, 1980)

2. 남포의 지리와 교통

1) 남포의 지리

남포특별시는 평양의 서쪽 대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평남 대동군과 증산군, 동쪽으로는 평양직할시와 송림시, 남쪽으로는 대동강 건너 황해남도 은천군과 은율군을 마주보고 있다.

남포는 평양의 외항이지만 얕은 수심과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대형 항구가 발전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는 도시이다. 남포의 조수간만차는 5.61m로 인천(8.32m)보다는 작은 편이다.³⁾ 남포는 조선후기에 잠시 조운항으로 기능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시작된 청나라와의 밀무역이 1890년대에 들어 성행하게 되었다.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 시기 일본의 병참기지가 되며 크게 발전한다.

1) 김동희, “진남포의 개항 과정과 무역구조의 변화,” 역사연구 26호. p. 124.

2)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 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한일관계사연구, 2021, 한일관계사학회, pp. 335-350.

3) 이찬우, “서해를 잇는 항구도시 남포를 바라보다,”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view.html?idxno=11795> (검색일: 2024. 08. 14)



장성택의 매형으로 알려진 리태남은 강선제강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천리마 지역의 기관에서 관료로 성장하였다. (사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해방 후 남포와 와우도구역이 포함된 남포시가 되었고 1979년에는 대안시(대안구역, 강서구역, 천리마구역)와 용강군을 편입하여 남포직할시로 승격되었다.⁴⁾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직할시 해체가 진행되던 2004년에는 대안시와 용강군이 다시 분리되고 와우도구역과 도심만이 남은 평안남도 남포특등시로 격하되었다. 남포의 특등시 격하에는 비화가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장성택의 매형으로 알려진 리태남이 평안남도당의 책임비서로 부임한 후 남포의 풍부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 장성택을 설득하여 남포를 평안남도에 귀속시켰다는 소문이 있었다.

개성, 라선, 남포는 북한의 행정 구역상 2010년 이전까지는 모두 특등시였으나 2010년 라선이 특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11년에는 남포가 평양의 서부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남포특별시로 승격이 되었다. 2019년 개성특급시의 특별시 승격으로 과거 북한의 '3대 특급시'가 '3대 특별시'로 바뀌게 되었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문헌에서 남포는 근 100만의 인구를 가진 특별시로 소개된다. 북한의 주요 도시의 인구를 보면 평양(310만), 남포(100만), 청진(65만), 함흥(54만)의 네 도시가 여타 도시들과 분명한 격차를 보이며 30만 전후의 도시들이 각 지역에 분포한다. 남포의 면적은 1,295km²인데 이는 일반적인 북한 도시들의 3-5배의 면적으로 남포의 특별시 승격 시 온천, 강서, 용강, 천리마 등 군, 시급의 도시가 남포에 편입되며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라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면적(km ²)	1,849	1,295	904	1,297
인구(명)	3,255,288	983,660	196,954	377,544
인구밀도	1,760	758	217	291

표1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조로 필자 작성. 2010년 남포로 편입된 온천군, 룡강군, 대안구역, 강서구역, 천리마구역의 합산값을 반영한다.

2) 남포의 교통

남포는 일제강점기 내내 부산, 제물포와 더불어 한반도 3대 무역항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였던 부산, 제물포와는 달리 남포는 주로 지역 특산품인 쌀과 사과의 출로로서 역할을 하거나 무역도 주로 통과무역에 머무는 수준에 머물렀다.⁵⁾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2년 조선총독부는 남포 시가지

4) 윤인주 외, 『북한의 해양도시: 남포, 나선, 원산』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5) 권경선, “근대 동북아시아 사회 하층 고찰을 위한 기초연구, 동북아연구 75집, 2023 .p. 9.



남포시내의 주요 기관, 북한에서 발간된 지도를 바탕으로 Google지도에 필자 작성

와 비발도 사이에 있는 간석지에 길이 500m, 폭 200m, 수심 6m의 항만 부두를 신축하여 1915년 완공하였다. 일제강점기 남포에는 다양한 국제항편이 있었는데, 오사카-남포-안동(단동)과 나가사키-남포-단동의 정기 해운이 각각 격주로 운행하였고, 오사카-남포-대련, 남포-요코하마, 남포-오사카-미국의 정기해운이 운행했다.⁶⁾

남과 북의 분단으로 북한의 바다는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두 바다 간 해상왕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유기적 해양수송의 장애로 인해 북한의 국내 항만의 수송 분담률은 전체의 2-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해와 서해의 해상 연계가 차단된 상황에서 남포항과 원산항은 각각 서해와 동해의 대표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남포항은 2021년 기준 북한 전체 해운기업의 선박 131척 중 86척이 등록된 항구로 이는 북한 전체 해운선박의 65.6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북한정권 초기 대외교역은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를 통한 교역이 주를 이루었다. 남포는 북한 최대의 교역항이었음에도 197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각 항구와의 무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통계

6)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 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p. 350.



남포항 전경 (사진 출처: 평화 문제연구소)

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포항은 북한과 비사회주의권 국가들 간의 교류에서도 중요한 통로를 담당했는데 1977-1987년 남포-홍콩 간의 무역이 활발했으며 1988-1998년까지는 싱가포르와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홍콩, 싱가포르 이외에도 나고야, 대련과 정기·비정기 항로를 유지했지만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1990년대 후반 남포항의 입지도 줄어들게 된다.⁷⁾

2000년대에 들어서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남북교역은 남포항에도 새로운 바람 일으켰다.. 1998년 8월에 남포-인천의 비정기 해운화물 항로가 개설되었고 2002년부터는 국내의 한 해운사가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을 통하여 주 1회 정기항로 운항을 시작했다. 남포항에는 이때 컨테이너 전용 항구가 건설되었는데 2002년 공사를 시작하여 16톤급 크레인 2대와 40톤급 크레인 1대가 설치된 컨테이너 전용 항구가 2006년 11월 완성되었다.⁸⁾ 남포는 인천뿐 아니라 중국의 다롄과도 연결성이 강화되었고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남포-인천 간 교류는 줄어들었으나 남포와 대련 등 중국의 도시들 간의 물류 이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프로젝트는 북한의 남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산둥과 북한 남포항 간의 여객화물노선 개항에 대한 양국 간 협약이 있었다. 협약을 통해 양국은 남포항에 호화 크루즈 여객선 및 화물 페리 노선을 개설하기로 서명하였다.

조수간만의 차이와 얇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남포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대동강의 수운이다. 남포는 한반도 제2의 도시 평양과 대동강으로 이어져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아키타(秋田)상회는 100톤과 40톤의 기선 2척으로 평양-남포 구간을 격일로 운행하였으며, 겸이포-남포는 매일 운항했다.⁹⁾

1908년 경의선이 개통하면서 평양 물류의 중심이 항로에서 철도로 옮겨가게 된다. 일제



일제강점기 평남선 노선도 (사진 출처: 매일간설신문)

7) 윤인주 외, 『북한의 해양도시: 남포, 나선, 원산』 pp. 105-113.

8) 윤인주 외, 『북한의 해양도시: 남포, 나선, 원산』 101, 102

9) 김경남, “1894-1910년 진남포 일본군 병참기지 건설과 도시 형성의 특성,” p. 349.

는 경의선의 지선으로 1909년 8월 평양-남포를 잇는 평남선 철도(55.2km)를 1910년 10월에 개통하였고, 1938년에는 온천에서 제조된 소금 수송을 위해 진남포-온천 구간(34.7km)이 연장되어 평남선의 길이는 89.6km에 이르게 되었다. 이 중 평양에서 남포까지의 구간은 1979년 전철화되었다. 평남선의 지선으로 보안선(강서-보안), 대안선(강서-대안), 룡강선(룡강-마영), 서해갑문선(평남신덕-철광), 도지선(남포-도지리), 남포항선(남포-남포항)이 건설되었다. 남포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다른 시도로 이동할 때는 평남선으로 이어진 황해도 온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을 거쳐서 환승 후 이동하게 된다.

평양과 남포 사이의 도로는 1915년 완공되었으며 1981년에는 평양-천리마-대안-항구역-남포에 이르는 1급도로(44km, 너비 20-40m, 고속도로로도 불림)가 개통되었으며 2000년에는 평양에서 출발하여 강서-룡강-갈천을 지나 남포에 이르는 왕복 10차선의 청년영웅고속도로 (42km, 너비 72m)가 건설되었다. 청년영웅고속도로를 통하면 평양에서 남포까지 30-40분이 소요된다. 북한에서 고속도로와 별개로 1급도로로 동시에 연결된 도시는 평양-남포가 유일하다.



박영석 기자 / 2014102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tN1



평남선은 2014년 러시아에 의해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3) 남포의 랜드마크 서해갑문

1981년 5월 22일 김일성 주석은 대동강 하구에 갑문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였다. 갑문의 기대효과는 29억톤의 담수능력을 지닌 인공호를 조성하여 남포항의 접안능력을 높이고,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동강 하구의 고질적 문제인 장마철 홍수를 방지하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강폭이 8km나 되는 대동강 하구에 독을 쌓는 난공사로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5년간의 노력 끝에 1986년 6월 공사가 완공되었다. 갑문은 3개의 갑실, 36개의 수문을 갖춘 하구둑으로 그 위에 철도와 도로, 인도가 놓였다. 총공사비는 약 4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준공 당시의 명칭은 남포갑문이었으나 9월 8일 “서해갑문”으로 개칭하였다. 독의 완성으로 29억톤의 물을 가두게 되어 대동강의 수위가 3m 상승하였고 남포항의 수심도 9-14m 깊어져 화물 처리능력도 1.5배가 늘어났다. 갑문을 통해 5만톤급 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으



서해갑문 전경

로 연결되었다. 서해갑문은 북한의 국력을 상징하는 선전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1994년 북핵위기 해소를 위해 방문한 카터 미국 전 대통령, 2007년 북한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 등 외국의 중요한 손님들에게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다. 그러나 서해갑문의 부작용으로 남포항의 염도가 낮아져 겨울마다 남포항에 결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평균결빙일수가 50일을 넘어 남포항은 더 이상 부동항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북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계급들이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보조를 맞춰 연대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참고, 사진: 뉴스1)

데, 김일성이 “나의 첫 고향은 만경대이지만 두 번째 고향은 천리마 강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일성은 천리마의 철강산업에 애착을 가졌다. 그밖에도 남포를 대표하는 기업소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대안천선유리공장으로 대표되는 기계·화학산업은 대안구역에,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산업과 남포조선소, 영남배수리공장, 남포해운선박공장 등으로 대표되는 조선, 선박사업은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에 입지해 있다.¹⁰⁾

경공업 기업소로는 대동강축전지공장, 대동강타일공장, 남포유리연합회사, 남포제분공장, 남포어린이약공장, 와우도제약공장, 강서고려약공장 등이 있으며, 군사 관련 시설로 인민군 서해함대사령부와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3. 남포의 산업과 시장

1) 남포의 산업

풍부한 광물과 항구의 이점을 살려 남포에서는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이 발전하였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은 천리마구역에 위치하는

10) 김영희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p. 68.



38 North를 통해 보도된 남포조선소의 위성사진. 2018년 남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이 가동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남포는 광량만제염소, 남포제염소등의 기업소를 보유하여 소금생산에 있어 북한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것으로 알려졌다.¹¹⁾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일부지역 최고 6노트 이상의 빠른 조류가 형성되는 이유로 어군 밀집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특히 겨울에는 한류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수산업에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1981년 북한 전체 어류 생산량에서 서해의 비중은 4.4%였으며 남포를 포함한 평안남도의 비중은 1.8%에 불과했다.¹²⁾ 남포에서는 오히려 소금생산이 발달하였는데 남포는 광량만제염소, 남포제염소 등의 기업소를 보유하여 소금생산에 있어 북한 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과 제염 이외에도 남포는 주변의 사과농장과 황해도의 쌀 농업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 남포는 쌀의 항구, 사과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다. 황해도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벼를 도정하는 정미업도 남포에서 발달하였다. 남포특별시의 농지 비율을 보면 농경지 중 논 47.8%, 채소밭 40%, 과수밭 8.7%, 뽕밭 2.7%의 분포를 보인다.

2) 남포의 시장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관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도시의 대표시장들을 보면, 1980년대에 이미 활성화되어 관리사무실도 존재하였으나, 시장의 운영과 관

11) 남근우,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 (인천: 인천연구원, 2020) p. 101.

12) 윤인주 외, 『북한의 해양도시: 남포, 나선, 원산』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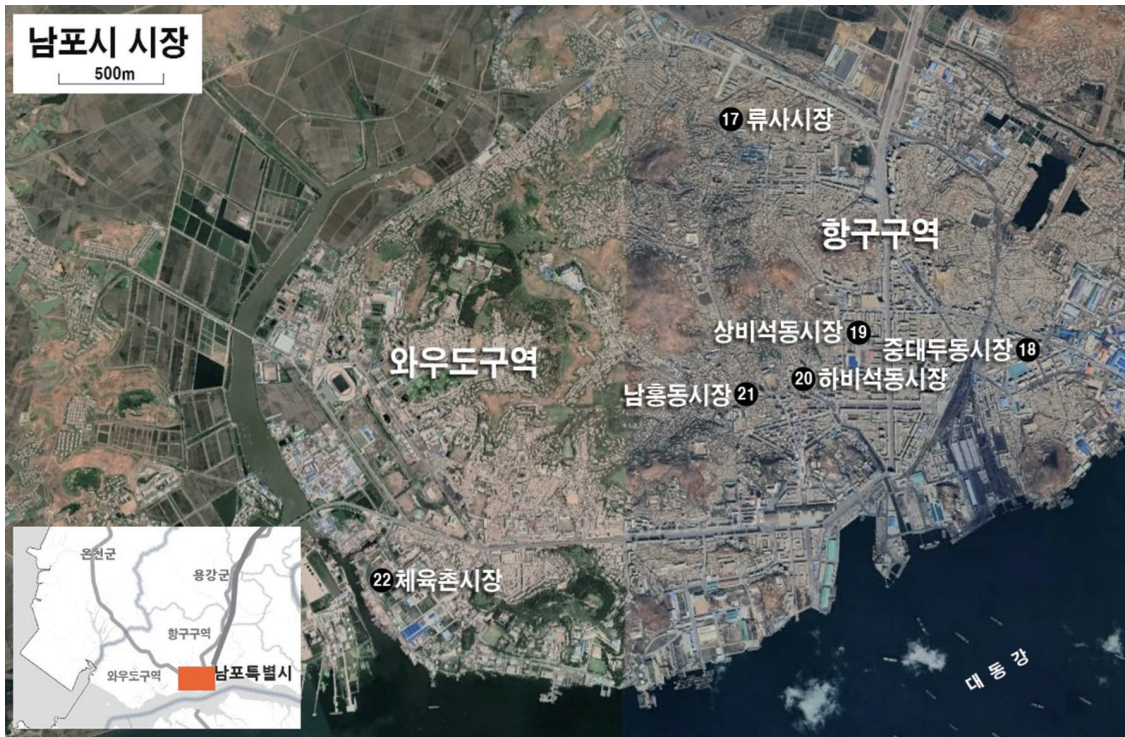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강서구역, 대안구역, 용강군 온천군 일대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내용 참조: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리가 과연 어떠한 법과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호하다. 그러던 것이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남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¹³⁾ 그러나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09년 화폐개혁을 고려하더라도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남포특별시에는 2022년 당시 77,506개의 매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평양을 제외한 단일도시 중 최대의 규모로 다른 특별시인

13)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남포특별시 시가지의 시장,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Google Earth 이미지 날짜: 2022. 12. 28, 내용 참조: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라선(12,220), 개성(13,557)의 6배에 달하며 자강도(44,358)나 강원도(59,797) 등의 도 전체의 매대보다 많은 수를 자랑한다. 통일연구원은 각 도시 시장의 장세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남포는 평양, 함흥, 청진, 원산, 신의주, 평성과 함께 장세 금액이 가장 비싼 1등급의 도시로 분류된다. 1등급 도시의 장세는 1일 기준, 2017년에 북한 돈 1,100원 - 3,000원이던 것이 코로나 통제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2년 9-12월에는 1,800-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⁴⁾

남포에는 총 21개의 시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10,000㎡이 넘는 규모의 시장으로 천리마구역의 천진동시장(16,695㎡), 항구구역의 중대두동시장(17,004㎡), 와우도구역의 체육촌시장(11,437㎡), 강서구역의 산업동시장(13,149㎡)이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10,000㎡를 넘는 시장이 없으며 청진, 함흥과 같은 대도시에도 한두 곳밖에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남포가 여타 도시들에 비해 시장이 월등히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남포의 시장은 과거에는 농산물을 팔던 시장들이 1997년 이후 발전하여 종합시장이 되었다. 남포 시내만을 놓고 보면 은덕시장, 남흥시장, 체육촌시장 등 세 개의

14)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대형시장과 중소형 시장인 하비석시장이 있다. 하비석시장 근처에는 부요한 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리마구역의 천진동시장은 시장주변 지역의 주거단지 확장, 서비스 산업 확장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 2019년 기존의 위치에서 150m 북쪽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이때 시장시설도 반원형 지붕으로 십여동이 조성되는 등 평양의 현대적인 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기존에 천진시장이 있던 자리는 2021년 9월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강서구역의 덕흥동 서부에 위치한 덕흥동시장은 2021년 개축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북쪽으로 180m 거리에 임시시장을 조성하였다. 항구구역의 중대두동 시장은 2016년 항구구역 남쪽 1.3km 거리에 위치한 해안동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때 규모도 기존 15,842㎡에서 17,004㎡의 현대식 건물로 확장되었다. 중대두동시장이 확장된 이유는 기존 시장부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며 현재 이전한 시장 주변에도 주거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확장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⁵⁾

4. 남포의 남북교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과 함께 1991년 12월에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남북화해 분위기에서 남한의 경제계는 발 빠르게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남포에 관심을 기울인 남한의 기업은 대우그룹이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은 1992년 1월 경제인방문단을 구성하여 남포항을 방문했다. 이후 대우그룹을 중심으로 인천-남포 해상항로를 구상하여 1992년 10월 정부로부터 제1호로 남북경협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남포시 항구구역 신흥리에 공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우그룹은 1995년 5월에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남포에 의류공장을 설립하였고 1996년 4월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민족산업총회사라는 이름의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의류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대우의 의류사업은 남한의 물류를 남포로 가져가 의류를 생산하여 남한으로 재수출하는 위탁가공형태로 이루어져 1998년에는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대우그룹은 당시 주력산업이던 백색가전산업에 대해서도 남포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대우그룹의 도산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2000년에는 통일교 산하의 평화자동차가 남포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을 이어받는다. 통일교는 2000년 정부로부터 남북경협사업을 승인받아 남포 항구구역에 공장

15)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126, 127.

을 설립한다. 2004년 4월 공장이 준공된 후 “휘파람”, “빠꾸기”, “준마” 등의 승용차와 “삼천리” 미니버스를 생산했다. 2010년 5.24조치로 인해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평화자동차가 2012년 북한 측에 운영권을 양도하고 철수함에 따라 평화자동차는 북한의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시기 남포-인천 간 항로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선박 운항은 국내

수송에 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양측 항만은 국내전용부두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2개 국적의 선사가 2,000-3,000톤 급의 선적을 각각 매월 4회씩 운행하였다.¹⁶⁾ 2006년 기준 남포-인천 구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7,94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으로 양국 간 컨테이너 물류의 64.4%를 차지했으나 2010년 5.24 조치로 인하여 2011년 이후 양국 간 물류교류가 중단되었다. 양국의 물류 활성화 기 인천→남포 선편을 통해서는 주로 섬유, 화학, 전기, 전자제품이 이동하였고, 남포→인천 선편을 통해서는 주로 농수산물, 광물자원, 바닷모래 등이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하였다. 특별지대의 주요 사업은 공동어로구역 설치와 더불어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후 인천시가 광역단체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시도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는 남과 북 각각의 관문도시인 인천시와 남포시 간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여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교류 확대 및 남북경제협력의 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천-남포 도시협력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 2015년 11월에는 인천항만공사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간 남포항 현대화사업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8월 13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흐름 속에 앞서 언급한 남포항 현대화, 남북크루즈 기항, 해주모래 수입의 3개 사업이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인천시는 2019년 대북지원 사업자를 선정, 북한 원료의약품지원, 남북교류기금을 확대하는 등 여러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004년 4월 통일교의 평화자동차는 남포의 공장을 세운 후 “휘파람”, “빠꾸기”, “준마” 등의 승용차와 “삼천리” 미니버스를 생산했다.

16) 윤인주 외, 『북한의 해양도시: 남포, 나선, 원산』 pp. 118-121.

17) 김영희,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p. 91.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 남포의 국제도시로의 성장과정과 공산정권 수립 후 남포의 위상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포는 평양의 외항일 뿐만 아니라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확고한 북한 제2의 도시의 지위를 갖고 있다. 평양은 공화국의 수도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과 수많은 통제가 존재하는 도시이다. 반면 남포는 삼면이 바다와 대동강 그리고 평양으로 둘러싸여 삼면 모두로부터 떨어지는 과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이 고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자원이 필수적이다. 낙동강, 태화강과 동해를 끼고 발달한 남한의 울산-포항 벨트, 미시시피와 오대호를 끼고 발달한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그 예이다. 대동강과 서해의 풍부한 수자원은 천리마로 대표되는 남포 중공업의 배경이 되었다. 북한은 대도시라도 시장이 10개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도인 평양에 31개의 시장이 있다. 남포는 인구로 보아 평양의 3분의 1의 규모임에도 평양과 엇비슷한 27개의 시장이 존재한다. 이는 각종 산업이 발전하고 바다와 평양 사이에 낀 남포의 특수성으로 가능한 수치이다. 또한 현대그룹의 주도로 개성공단이 시작되던 시기. 대우그룹의 주도로 남한 기업이 진출하며 여러 공장이 남포에 설립되었다. 남포는 개성을 제외하고 남북경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도시이다. 북한을 대표하는 제2의 도시이자 남북경협의 경험이 있으며 북한의 도시들 중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와 접촉하고 있는 도시인 남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남포의 발전과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포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남포특별시(이후 남포)는 평양과 함께 남한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선호하는 북한 도시이자,¹⁾ 북한에서 유일하게 평양과 고속도로가 두 곳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해운업과 교통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다.²⁾ 체제전환 도시의 발전이 외국인 직접투자 등 글로벌 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³⁾, 남포는 미래 동북아 물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하지만 남포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학술적인 연구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 글은 위성자료(remote sensing data)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남포 도시공간의 특성과 일상 생활을 드러내려 한다.

남포에 대한 기존 연구

남포시는 2010년 라선시와 함께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평안남도의 강서군, 대안군, 온천군, 용강군, 천리마군 등 5개 군이 편입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⁴⁾ 인구는 2008년 통계 기준 366,815명, 5개군 편입 이후 2014년 연구에서는 983,660명으로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다.⁵⁾ 북한의 해상운송은 1985년과 1990

1) 이현주, 202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를 활용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개발협력 방식에 관한 고찰: 남포와 우도수출가공구 및 평양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3권 1호, 33-62.

2) 강은주, 2015. “북한의 ‘국제시장’ 남포시장”, 『월간북한』

3) Stanilov, Kiril. 2007. *The Post-socialist city: Urban form and space transform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socialism*. Springer Dordrecht.

4) 이상준, 김천규, 박세훈, 신혜원. 2011.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국토연구원.

5) DPRK. (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Pyongyang.; Dormels, Rainer, 2014. North Korea's Cities. Jimoondang.

년 사이 23%에서 1998년과 2005년 사이 30%로 증가하면서 항구도시로서 남포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⁶⁾ 특히 남포는 북한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평양과 인접하고 고속도로를 갖추어, 평양-남포가 북한 주요 산업거점별 입지여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⁷⁾ 이상준 외 연구결과에 따르면,⁸⁾ 남포 경제특구의 강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1) 양적,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 2) 해상, 철도, 도로 등 교역에 유리한 입지 확보, 3) 배후지에 미래 잠재 소비재시장 확보, 4) 평남지역의 지하자원 및 용수확보 가능, 5) 전력 및 통신기반시설 일정 수준 확보를 꼽았다.⁹⁾ 공간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남포 도시공간은 1985년 인천직할시와 유사했으며,¹⁰⁾ 남한 중소기업과 개발사가 남포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제조완제품 생산·조립(67.9%)’, ‘소재·부품생산(14.3%)’ 등 제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15.4%) 등 벤처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¹¹⁾ 북한 정권에 남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남포 건설 관련 로동신문 기사수는 67건으로 평양(215) 다음으로 높으며, 이 수치는 같은 시기 관광 개발의 주요 도시인 원산(48) 보다 높다.¹²⁾

소비에트 붕괴 이후인 1994년부터 북한의 해상운송 주요 품목이 석유에서 컨테이너 물품으로 바뀌면서 남포는 북한 전역으로 퍼지는 도매 시장으로 변모했다.¹³⁾ 남포는 남북한 교류와 물류 유통의 중심 항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한 대북지원 물품인 쌀, 미역, 당근, 굴, 신발, 의류 등은 남포항을 기착지로 평양으로 이동된다.¹⁴⁾

연구를 위한 자료 준비

필자는 남포의 도시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남포시 행정구역 1,295km² 전체를 7

6) Jo, Jin-Cheol and Ducruet, César 2006. "Maritime trade and port evolution in a socialist developing country: Nampo, gateway of North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51, 1 3-24.

7) Jin-Cheol Jo, César Ducruet. 2006. 위의 글; 이상준 외. 2011. 위의 글.

8) 이상준 외. 2011. 위의 글.

9) 이에 비해 남포의 단점으로는 1) 입지의 민감성, 2) 기존 인프라 노후, 3) 중공업 생산시설 집중에 따른 환경오염, 4) 공업용지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향을 지적했다(이상준 외, 2011, 124쪽).

10) 윤석환. 2018.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통일 후 북한 도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1) 이현주. 2021. 위의 글.

12) 박희진, 2021. "김정은 시대 10대 도시의 개발과 격차(gap)" 통일인문학 제86집. 201-240.

13) Jo and Ducruet. 2006. 위의 글.; 강은주, 2015. "북한의 '국제시장' 남포시장," 『월간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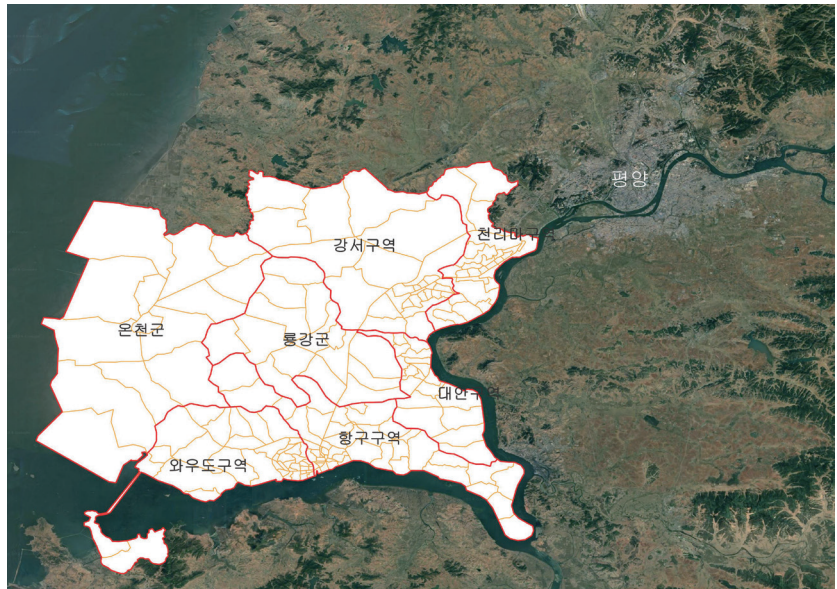
14) 강은주. 2015. 위의 글.

개 구역 191개 ‘동’ 단위로 분리했다.¹⁵⁾ ‘동’ 단위 지리정보는 무료 제공 프로그램인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벡터 형식의 디지털 자료(shape file)로 생성 및 분석했다. 남포시 분석을 위해 구분된 191개 동 단위 분할은 <그림 1>과 같다.

191개로 분할된 지역에 대해 위성자료를 추출했다. 추출한 자료

는 인구수, 건물밀도, 야간조도(불빛), 숲 면적, 수풀 면적, 경작지 면적, 시장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주요 도로와 생활도로 비율, 관심지점(POIs)¹⁶⁾이다. 필자는 자료를 추출 후 QGIS 프로그램을 통해 191개 지역에 따른 개별 자료의 밀도를 파악해 공간 특성을 분석했다. 이후 남포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남한으로 온 이탈주민 3명(A: 60대 교사, B: 40대 장사, C: 50대 당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남포의 도시공간 위성자료 분석 내용에 대한 교차검토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그림 1> 남포 도시공간을 191개로 분할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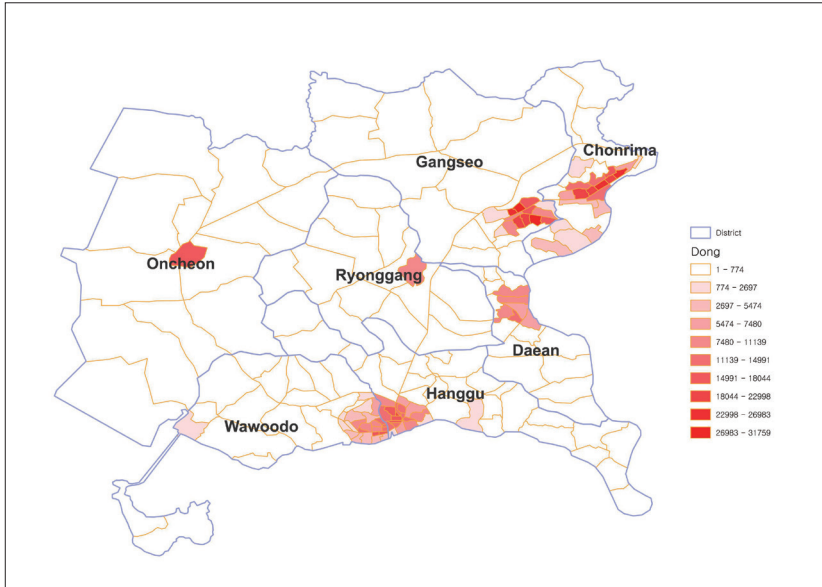
남포 도시공간의 특성

남포시를 191개 ‘동’ 단위로 구분해 추출한 위성자료를 분석해 보면 남포 도시공간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먼저 인구분포를 보면 항구 쪽 도심뿐 아니라 각 구역 도심에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15) 행정구역 상 남포는 75개 동, 49개 리, 2개 읍, 5개 로동자구로 총 131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남포·개성·라선시』 2004. (사)평화문제연구소). 대상 지역은 크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남포시 동별 행정구역 구분 정보는 도엽번호를 가진 1:5000 중 이 지도를 포함해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 자료와 위성영상을 고려하여 ‘동’을 구분했다.

16)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ings)은 독일 Geofabrik사에서 제공하는 Open Street Map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 지점은 상가, 도서관, 학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위치정보이다.

〈그림 2〉 남포 도시공간 인구밀도 분포



출처: 필자 작성.

으로 항구쪽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은 항구구역의 문화동, 상비석동, 역전동, 항구동, 후포동 일대와 와우도구역의 남흥동, 룡정동, 룡수동, 진수동 일대로 이 지역은 항구, 남포역, 남포 중앙광장, 남포사범대학이 위치해 있다. 평양과 인접한 천리마구역(북한 주민은 이 구역을 ‘강선’이라 부름)은 도심인 상봉동, 역전동, 원정동, 달마동 인근에 인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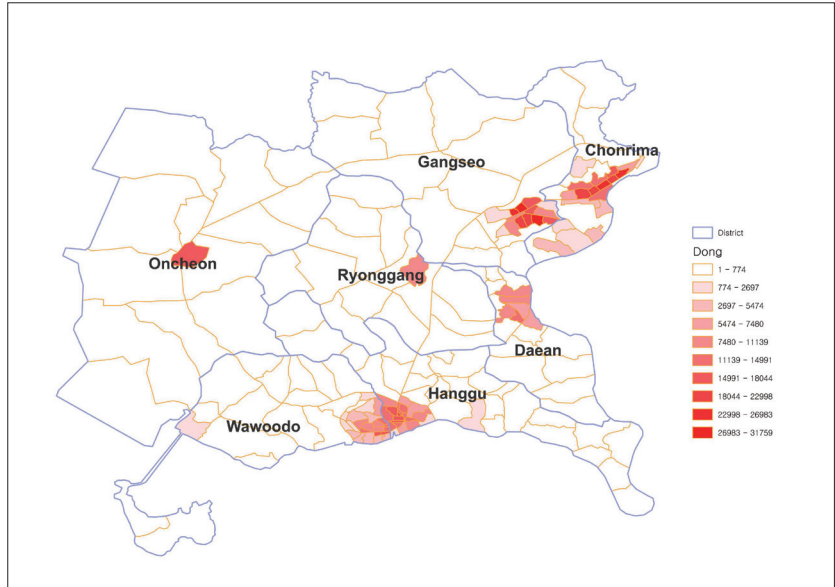
밀집되어 있다. 이 구역 인구가 밀집된 도심 공간은 강선역을 기점으로 이어진 주요도로 양옆으로 고층 건물과 시장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도시의 초기 발달 형태인 선(線)형 도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역의 경우 강서역과 주요도로를 좌우로 문화동, 락원동, 기산동, 서학동 인근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 구역 인구 밀집지역은 공장지대인 산업동 인근 주거지에 위치한다. 대안구역의 경우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인근 주거지인 대정동과 옥수동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농촌지대인 온천군은 읍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남포시 191개 ‘동’ 단위 공간 인구밀도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남포 도시공간의 피복(land cover)을 위성자료로 확인하면 숲은 서쪽 해안 지역에는 밀도가 약하며, 룡강구역과 온천군 경계지역, 강서구역과 평안남도과 경계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다. 경작지(논과 밭)의 경우는 도심지역을 제외한 남포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시장 접근성과 관심지점(POIs), 건물밀도는 대체로 인구가 밀집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도로 길이의 경우 주요도로는 구역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생활도로는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다른 구역에 비해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 도심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남포시 191개 동별 야간조도는 EOG(Earth Observation Group)에서 제공하는 VIIRS(resolution 463.83m) 자료를 추출했다. 야간조도는 개발도상국의 경

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¹⁷⁾, 북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과 야간시간 활동¹⁸⁾, 빈곤 지역연구¹⁹⁾에 사용된 변수이다. 남포의 도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야간조도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참조). 하지만 〈그림 1〉의 인구밀도와 야간조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농촌 ‘군’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더라도 야간조도는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도심의 경우에도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도심 외곽 산업지대에도 야간조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남포 도시공간 야간조도 분포



출처: 필자 작성.

남포의 일상

남포 출신 3명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남포 주민들은 북한의 남포 ‘특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남포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전

17) Putri, S. R., Wijayanto, A. W. & Pramana, S. (2023). Munti-source satellite imagery and point of interest data for poverty mapping in east Java, Indonesia: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approaches. *Remote Sensing Applications: Society & Environment* 29, 1 - 20.; Puttanapong, N., Martinez, A., Bulan, J. A. N., Addawe, M., Durante, R. L., & Martillan, M. (2022). Predicting poverty using geospatial data in Thailand. *ISP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11(5), 1 - 30.

18) Kim, K. (2022). The North Korean economy seen by satellite: estimates of national performance, regional gaps based on nighttime light. *Journal of Asian Economics* 78, 1 - 19.; Cuaresma, J. C., Danylo, O., Fritz, S., Hofer, M., Kharas, H., & Laso, J. C. (2020). What do we know about poverty in North Korea? *Palgrave Communications* 6(1), 1 - 8.

19) Lee, Si-Hyo., Suh, Moon-Gi., Kim, Sung-Bae and Baek, Myeongsook. (2024). Urban poverty patterns in Pyongyang (North Korea): A deep-learning-based spatial analysis. *Cities* 151. <https://doi.org/10.1016/j.cities.2024.105109>

기 사정이 좋은 편이며(B, C), 남포항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의 제1 물류항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선(천리마구역) 주민들은 평양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평양 문화의 향유를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다.

“(남포 사람들은) 자부심 있지. 우리야말로 이제 내부 문물이, 가장 우리로부터 전파되는. 우리가 선도자라는.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C와 인터뷰)”

남포는 구역별로도 차이를 가진다. 특히 동북쪽 강선이라 불리는 천리마 구역과 남쪽 항구 도심지역은 같은 남포 특별시민이면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일상생활을 가진다. 강선은 평양과 인접해 항구보다는 평양의 영향을 더 받는다. 고난의 행군 이후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지역에는 옷을 만드는 가내 수공업이 발달했으며, 평양과 평성 등 시장을 중심으로 패션을 선도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항구쪽 남포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깝고 세련된 평양 시장을 이용한다(A). 이에 비해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 도심지역 주민은 북한 제1항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물품이 도매로 거래되는 시장과 무역인을 상대로 한 음식점, 숙박업 등이 발달되어 있다(B, C).

“(강선에 살 때) 남포(항구도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평양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평양은 차 타고 30분 내로 갈 수 있지만, 남포(항구)는 1시간 넘어야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리고 평양은 구경거리가 있지만 남포는 구경거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포(시민이)라고 해서 별로 남포(항구도심)에 가고 싶다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A와 인터뷰)”

남포는 식량 등 대북지원 물품이 배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가는 남북교류의 도시이다. 1990년대 말 대북지원 물품의 증가는 남포 시민들의 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부에서는 남포항으로 들어가는 대북지원 물품이 평양으로 바로 이송되기 때문에 남포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자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남포에 도착한 대북지원 물품의 일부는 항구에 일하는 노동자와 관리자를 통해 유출되어 남포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물품 중 일부는 남포 도매시장을 통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다. 또한 쌀 포대에 한글이 쓰여진 대북지원 물품을 보며 남포 주민들은 ‘당이 선전하는 것이 거짓이며, 남한은 소문대로 잘산다’는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 (A, B, C).

“(99년쯤 남한에서) 굴도 들어오고, 쌀도 엄청 들어왔어요... 굴이 들어왔다

그러면, 굴이 다 싱싱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거 작업을 해서 구호품 다 빼거든요. 우리도 남포항에 사는게 아닌데도 항에 다니는 사람이 굴을, 그것도 다 깎 굴을 세 바퀴(바구니)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집에 한 바퀴씩 줬어요... 쌀들이 흘러 막 바닥에 그러면, 노동자들 보고 그거 다 처리하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막 터뜨리겠죠. (B와 인터뷰)”

나가며

남포는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부 문물과 남한의 물품이 직접 들어가는 북한 제일의 항구도시이자 소통의 통로이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사물은 하나의 물건에 그치지 않고 역사, 문화, 기술이 집약된 블랙박스이다.²⁰⁾ 남포로 들어가는 쌀 등 대북지원 물품은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덜어줄 뿐 아니라, 질 좋은 쌀과 중국, 일본보다 질긴 포대(곧 남한의 기술)를 북한에 전달한다. 이 물품들은 시장의 식량가격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려 서민들의 식량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남한의 농업, 공업 기술을 북한 주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포는 남한의 인천과 같은 도시로 평양과 함께 현재와 미래 북한 변화의 중심 도시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변화된 북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바란다면, 남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20) 브루노 라투르, 2018. 홍성욱 옮김. 『인간·사물·동맹』 이음.

서해 관문도시 남포시의 개발현황과 전망

남근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남포시는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북한의 관문도시이자 항구도시이다. 행정구역은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강서구역, 천리마구역, 대안구역과 온천군, 룡강군 등 5구역 2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1,295km²로 북한 면적의 1.1%를 차지한다. 2016년 간척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면적의 약 3배인 153km²가 증가했다.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남포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해군에 의해 항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증남포와 주변마을을 통합해 진남포부가 설치되었다. 진남포로 변경된 이유는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청나라군을 진압했다고 해서 진압할 진(鎭)을 썼다고 한다.



화물이 적치되어 있는 남포항의 모습.

1945년 해방 직후 남포시로 변경된 후 1979년 12월 남포직할시로 승격했다. 2004년 1월 평안남도 남포특급시로 격하되었다가 2010년 7월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우리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로 다시 승격되었다. 인구는 98만 명으로 북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한다. 서쪽으로는 서해, 남쪽으로는 황해남도 은률군과 온천군, 북쪽으로는 평안북도 증산군과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

동강을 사이에 두고 황해북도 송림시, 동북쪽으로는 평양직할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대동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일성 생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남포시는 평양의 관문도시로 일컬어진다. 또한, 남포항을 통해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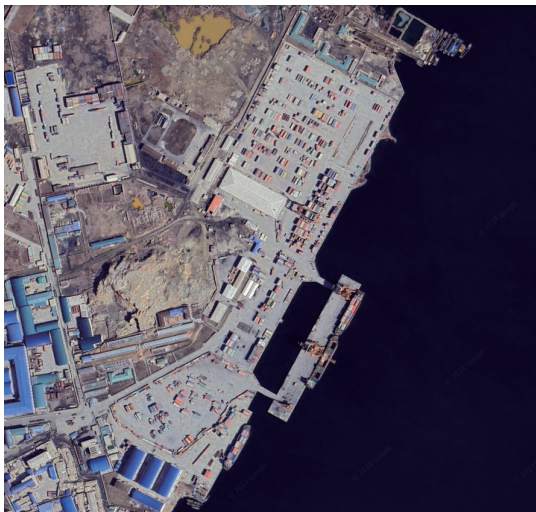
한 관문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찍이 김일성은 철도와 배로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신의주와 해주보다 남포시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관문도시로서의 남포시가 가지는 중요성은 북한 제1의 항구도시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2. 남포시의 주요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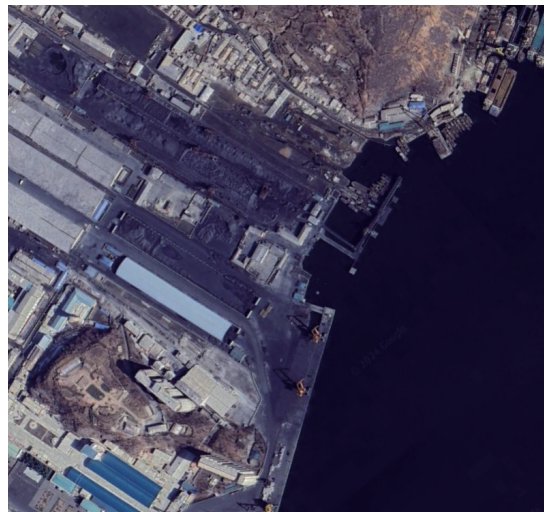
(1) 남포항

1962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남포항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항구이다. 북한 최대 공업지대인 평양-남포공업지대의 해상관문이자 서해안 제1의 무역항이다. 남포항은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물자 대부분을 처리했던 항구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동해의 나진, 선봉, 청진, 흥남, 원산, 단천과 서해의 남포, 송림, 해주 등 9개의 무역항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남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역항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6월 서해갑문이 준공되어 최대 12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해 5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다. 서해갑문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수심은 평균 9~11m를 유지하고 있다.

남포항은 석탄과 시멘트 등 평안남도 북부탄전과 안주탄전에서 산출된 광물자원을 주로 취급하는 항구로서 석탄을 취급하는 8부두와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9부두 등 9개의 부두가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5만 톤급 선박과 2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다. 컨테이너부두의 처리능력은 20피트 컨테이너 40만 개



컨테이너 전용부두



석탄부두

에 해당하는 연 60만 톤 규모로 알려져 있다. 남포항 부두의 총연장은 2.1km, 수역 면적은 20만㎡이다. 5.24조치 이전에는 국내 대북업체에서 남포항 현대화를 위한 부두 확충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물류수송 창고 건설과 컨테이너부두에 화물하역용 크레인이 추가 설치되는 등 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항만시설 및 교통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2006년에는 남포항 컨테이너부두 공사, 2008년에는 청진서항 방파제 개건공사를 끝내는 등 주요항에 부두를 새로 건설해 하역능력을 높였다. 또한, 남포시에는 1979년 건설된 평양-남포고속도로와 함께 2000년 건설된 청년영웅고속도로가 있다. 이러한 남포항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평화자동차, 약전기계공장, 대안천선유리공장 등 외자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포항은 갑문항으로 오전 10시 이전에 파일럿 스테이션(pilot station, 내항으로 들어가기 전 세관검사를 받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날 입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오전 12시 이전에 출항해야 하는 등 항구 이용에 적잖은 애로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시설 관리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명장치가 없어 야간하역이 불가능하고 저장시설(싸이로)도 낙후해 곡물과 무연탄 등 하역작업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포항 이용에서 가장 큰 애로는 서해갑문이 바닷물 유입을 가로막아 남포항 일대 수역에 염분이 부족해 겨울철에는 결빙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을 빚곤 한다. 또한 남포항과 인접한 대동강변 공장지대에서 정화 없이 오폐수가 방류되어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교통시설

남포시에는 평양까지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또한 평남선 철도가 평양까지 연결되어 있다.

1978년 가장 먼저 건설된 평양-남포고속도로(44km)는 4차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서해갑문에서 출발해 항구구역 청년다리에서 청년영웅도로와 합류한다. 이어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들어서 있는 대안구역과 천리마제강소가 있는 천리마구역을 통과해 평양 대동강까지 연결되어 있다. 2000년 완공된 청년영웅고속도로(53km)는 10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항구구역 청년다리에서 출발해 평화자동차, 강서구역, 천리마구역을 통과해 평양 만경대 광복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외에도 남포시에는 지선도로로 남포-온천방면 도로와 여기에서 분기되는 서해갑문도로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천리마구역-강서구역을 거쳐 평양-남포고속도

로와 연결되는 도로도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육상 수송망은 철도가 중심이고 도로와 해운은 이를 보조하는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남포시 주요 철도로는 평양-남포를 연결하는 평남선 철도(55.2km)가 있으며 시속 30km 안팎의 속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포 시내 중간역 이상 철도역은 24개로 이 중 신남포역, 온천역, 강서역은 집중화물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남포역은 평화자동차와 인접해 있으며 덕동역은 남포시 경제개발구인 진도수출가공구, 서해갑문역은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인접해 있다. 남포항과 인접한 철도역은 잠진리역이다.



평남선 신남포역 전경

(3) 산업시설

남포시는 남포항을 비롯해 인근에 송림항이 있어 물류교통의 중심지이자 대동강을 이용한 공업용수 조달이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남포시에는 철광석, 무연탄 등 지하자원을 가공하는 천리마제강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북한 최대의 중공업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1960년대 북한의 집단혁신훈동으로 알려진 천리마운동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남포시 천리마제강소와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창안되었다는 점에서 공업도시 남포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주요 산업은 기계제작, 금속, 화학, 건재공업 등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철강, 제강, 제련 등 금속공업과 중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선박 등 기계공업이 밀접하게 연관된 생산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남포시는 북한 최대의 비철금속 공업단지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각종 비철금속 재료는 농기계, 차량, 트렉터, 군사용 장비 등 여타 중공업 제품의 생산에 제공되고 있다. 현재 와우도구역, 항구구역, 강서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에 총 8개의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포시 공업지대의 면적은 14.8km²로서 와우도구역과 항구구역이 8.21km²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천리마구역이 3.2km², 대안구역이 2.3km²를 차지한다.

남포 선박수리공장 전경. 남포에는 북한 최고의 중공업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 경계특구
 ⚙️ 경제개발구
 ☁️ 공업개발구
 ⚓ 관광개발구
 🚜 농업개발구
 🔬 첨단기술개발구
 🏭 수출가공구
 🚩 국제녹색시범구

● 황금평·위화도
 ● 신의주
 ● 개성

● 은성성
 ● 나선
 ● 청진
 ● 어랑
 ● 해산
 ● 양강도
 ● 만포
 ● 청수
 ● 위원
 ● 평안북도
 ● 압록강
 ● 속천
 ● 평안남도
 ● 은정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북청
 ● 홍남
 ● 연동
 ● 신평
 ● 강원도
 ● 금강산
 ● 양해남도
 ● 강령

● 평안북도
 ● 평안남도
 ● 함경북도
 ● 함경남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제주특별자치도

news 1

30°N 125°17'30"E이며, 계획면적은 1.5km²이다. 10km 거리의 남포항을 활용해 임가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상무역 등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해갑문 공사 후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립과 지반개량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이 지역은 공터로 확인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1월 21일 같이 지정된 진도수출가공구는 와우도수출가공구 바로 옆에 조성될 계획으로 역시 염전지역을 간척해 조성할 계획이다. 좌표는 38°42'30"N 125°18'30"E이며, 계획면적은 1,37km²이다. 와우도수출가공구 건설공사가 끝나고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진도수출가공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와우도수출가공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투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의 도시협력 및 개발협력 사업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과 외국자본 유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포시는 북한 제1의 무역항이자 평양과 연계된 공업지대로서 수출중심의 가공사업 및 첨단기술산업지대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이다. 특히 황

남포시에는 2010년대에 지정된 경제개발구 28개 중 지방급 1개와 중앙급 1개 등 모두 2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남포시 경제개발구 개발방향은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지방급 개발구인 와우도수출가공구 건설이 끝나면 중앙급 개발구인 진도수출가공구 개발로 확대하는 것이다.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진도수출가공구는 서로 인접해 있어 와우도수출가공구의 투자유치 및 공단 건설을 통해 진도수출가공구의 성공 여부를 타진하려는 계획으로 유추된다.

2013년 11월 21일 지정된 와우도수출가공
구는 대동강 하구에서 서해갑문으로 가는 도
로 양쪽에 위치한 와우도구역 영남리 염전지
역을 간척해 건설할 계획이다. 좌표는 38°42′

해남도와 인천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살린다면 남포시는 남북한이 연계한 개발협력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남포시 개발사업은 남포항 현대화사업과 와우도수출가공구 및 진도수출가공구 개발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개발



구 사업은 북한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정책기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시군발전법’과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지방발전 20×10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군발전법은 일종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각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제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핵심은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이다. 지방발전 20×10정책 역시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공업공장의 건설 및 현대화가 핵심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남포시는 남포항 현대화 사업과 와우도수출가공구 및 진도수출가공구 개발사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포시 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¹⁾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

1. 남포시 개관

남포시는 북한의 서부 대동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평안남도 대동군, 서쪽으로는 평안남도 증산군, 동쪽은 평양시 락랑구역·강남군과 황해북도 송림시·황주군, 남쪽은 황해남도 은천과 은률군이 있다. 북동쪽으로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이 있으며, 남서쪽 일부 지역은 서해와 맞닿아 있다. 평양시로 연결되는 해안 도시로서 해상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포항에서 평양국제공항까지는 50km, 중국의 다롄 330km, 산둥성 웨이하이 332km, 상하이 930km, 톈진 695km 거리에 있어 남포시는 국내외 해상운송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남포시 행정구역은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 강서구역, 룡강군, 온천군으로 5구역 2개군 74동, 2읍, 3노동자구, 46리로 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1,293km²이며, 인구는 약 98만 3천 명으로 나선경제무역지대인 나선시에 비하면 각각 1.37배, 4.99배 크다.

평양시에서 대동강 하류를 따라 철강→기계·화학→자동차·조선업이, 경공업과 수산업을 비롯해 여타 산업은 남포시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철강산업은 천리마구역, 기계·화학산업은 대안구역, 자동차·조선업은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에 있다.

2. 인프라 현황

남포시에는 평양을 연결하는 간선인 평남선과 다수의 지선이 있다. 평남선(평양~온천)은 평양에서 강선, 강서, 룡강, 남포역을 지나 온천역에 이르는 노선이다. 철로의 길이는 89.6km이며, 평양에서 남포역까지 55.2km 구간은 1979년 전철화되었다.

1) 김영희, “북한 남포시 산업실태와 남북협력 방향”, 『KDB북한 개발』 2019년 가을호(통권20호) 요약, 보완하여 정리

지선으로는 평남선에서 갈라진 보산선(강서~보산), 대안선(강서~대안), 룡강선(룡강~마영), 서해갑문선(평남신덕~철광), 도지선(남포역~도지리), 남포향선(남포역~남포향)이 있다. 이처럼 철도노선은 함경남북도, 황남북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평양을 통과해야만 전 지역으로 갈 수 있다.



평양-남포 고속도로, 남포-평양 간에는 1981년에 개통된 길이 44km의 1급 도로와 2000년에 개통된 평양-남포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가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국제무역항인 남포항이 있다. 원래 남포항의 하역능력은 830만 톤 정도였으나, 2006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완공되면서 1,0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로로는 남포~평양, 남포~해주, 남포~장연 간 국도가 있다. 남포~평양 간에는 1981년에 개통된 길이 44km의 1급 도로와 2000년에 개통된 평양-남포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가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국제무역항인 남포항이 있다. 원래 남포항의 하역능력은 830만 톤 정도였으나, 2006년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완공되면서 1,0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항으로는 군용인 온천비행장이 있다. 3개의 활주로로 구성된 온천비행장은 남북 방향으로 2.5km의 주 활주로는 있고 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동서 방향으로 2.4km 제2 활주로는 있다. 온천비행장과 백령도의 직선거리는 117km, 서울까지는 213km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이 갈마비행장처럼 온천비행장을 민수용으로 전환한다면 공항을 통한 운송도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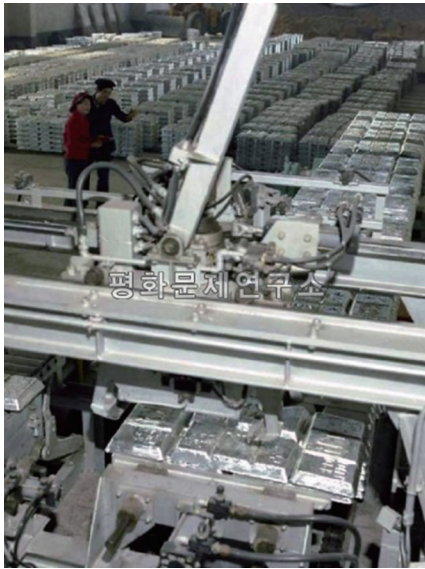
3. 주요 산업 현황

북한은 지역별(각 도, 시·군) 수요를 지역 자체로 해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도와 시·군을 단위로 소비품 생산공장과 농산물 생산 협동농장이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급 산업들도 있다.

남포시에는 북한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금성트랙터공장, 남포조선소, 령남배수리공장, 대안천선유리공장 등 중앙급 기업들과 도급 기업인 기초식품공장, 종합식료공장, 신발공장 등이 있다. 이처럼 중앙급 기업은 주로 철강·기계·조선·자동차·채취공업 등 중공업 부문, 도급 및 군급 기업은 경공업 부문이다.

가. 철강공업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 5월18일대형단조공장, 강선금속압연공장은 남포시에 있는 철강기업이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일제강점기 특수강 생산



남포제련종합기업소 (사진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공장이었던 평양제강소의 확대·개편을 통해 북한의 대표적인 철강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연간 생산능력은 2010년 기준 강철 75만 톤(특수강은 30만 톤)과 압연강재 55만 톤(강관 11만 톤)이다.

동 연합기업소의 부지면적은 274만㎡, 건물 면적은 39만㎡이며 약 1만 3천 명의 종업원이 근무한다.²⁾

천리마구역 보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산제철소는 서부지역의 풍부한 쇠 돌(분광)과 석탄을 이용하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필요한 철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능력은 입철과 삼화철 연 36만 톤이다. 이외 전국의 여러 광산에서 공급받은 동광, 금광, 아연광으로 동, 아연, 금과 동선, 동봉, 동관, 동판을 비롯한 압연제품을 생산하던 남포제련연합기업소가 있었으나, 2000년도에 폐쇄되었다.³⁾

나. 기계공업

남포시에는 대형발전설비와 대상 설비, 트랙터, 불도저, 전기기계, 통신기계, 상업기계 등을 생산하는 중앙급 기계공업이 분포되어 있다. 대형발전설비와 대상 설비는 대안구역, ‘천리마’호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는 강서구역, 전기기계와 통신기계는 항구구역·대안구역·강서구역·룡강군, 상업기계는 와우도구역에서 생산한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의 공업관리체계였던 ‘대안의 사업체계’를 탄생시킨 유명한 기계공업 기지이며 최대의 대형발전설비 및 대상 설비 생산공장이다. 주로 수력 및 화력발전 터빈, 대형 전동기, 고속전동기, 수력 및 화력발전기, 변압기, 대형 지차, 대형보일러 등을 생산한다. 연간 생산능력은 75~320kW A 수력터빈 발전기 100대 수준이다. 부지면적은 113만㎡이며, 종업원 수는 약 1만 4천 명으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보다 약 천 명 정도 많다.

금성트랙터공장은 15~80마력 ‘천리마호’와 ‘충성호’, ‘풍년호’, ‘태성호’, 경사지용 트랙터, 300마력 불도저, 벼 종합수확기, 이동식 벼 탈곡기, 농업용 기계 부품 등을 생산한다.

이외 냉동기용 소형전동기, 보일러, 고속도 분쇄기, 컨베이어 여과기, 가열기 등

2) KDB산업은행, 『2015 북한의 산업』, 2015.p.241

3)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2』, 조선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5.p.32

을 생산하는 남포상업기계공장과 남포통신기계공장, 특수용접봉을 생산하는 남포용접봉공장 등이 있다.

다. 조선 및 수리조선업

남포에는 북한 최대의 조선소와 수리 조선소가 있다. 남포조선소는 여객선, 선미 트롤선, 화물선 등을 건조한다. 연간 최대 건조 능력은 5.04만 톤이고 2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부지면적은 27.3만㎡, 건물 면적 4.7만㎡이며, 종업원 수는 7천여 명이다. 남포조선소는 1966년 1,300톤급 냉장선을 건조한 데 이어 3,500톤급 냉장선, 1970~1980년대에는 2만 톤급과 1.4만 톤급 화물선, 1990년대에는 여객선을 건조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는 대동강호와 무지개호 유람선을 건조하였으며, 2018년에는 SLBM용 바지선을 건조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⁴⁾

와우도구역 소재 령남배수공장은 대형 냉장운반선, 유조선, 물 운반선, 대형 화물선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수리 조선소이다. 1980년대 후반에 확장공사를 통해 공장부지 면적은 2.5배로 늘었으며, 현장에는 수문과 함께 여러 대의 펌프와 크레인 설치되어 있다. 2개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호 도크는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2006년 1호 도크의 4배로 건설되었다. 2호 도크는 수만 톤짜리 선박 여러 척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의해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대형 도크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8월 남포시 대안구역 금성뜨락도르공장을 현지지도하고 있다.(사진 출처: 연합뉴스)



남포에는 북한 최대의 조선소와 선박수리소가 있다. 남포조선소는 여객선, 선미트롤선, 화물선 등을 건조한다.(2016년 남포의 선박수리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라. 건재공업

남포지역의 건재공업에서 기본은 판유리, 건설자기, 석재, 금속 건재 생산이다. 대안구역에 소재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북한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유리생산기지이다. 원래 판유리공장은 항구구역에 남포유리공장으로 존재했으나 2000년 남포제련소와 함께 폐쇄되었다.

4) 『연합뉴스』, 2018.1.17



남포의유리그릇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 (사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이후 2003년 중국과 유리공장 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억 6,000만 위안(2,4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2005년 10월 부지 29.3만㎡, 건평 15.5만㎡ 규모의 대안친선유리공장이 건설되었다. 동 공장은 판유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압연유리, 광학유리를 비롯한 다양한 유리 제품과 고압에 견디는 유리관을 생산한다. 판유리 생산능력은 2mm 판유리 기준으로 연간 약 162만 상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경공업

북한은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은 지방급 경공업 공장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지역 생산 및 공급 체계’에 기초하여 지방산업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이러한 체계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지역별 산업 배치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또한 생산설비와 생산공정의 노후화, 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지방의 경공업은 매우 낙후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 발전 20×10 정책」⁵⁾을 제시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 경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다.

남포시에는 양복, 뜨개옷, 운동복, 머플러, 내의류 등 다양한 의류를 생산하는 수출 피복공장과 군급 편직 공장, 옷 공장이 있다. 또한, 각종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초식품공장과 종합 식료공장, 강서약수공장 등 도급 기업과 군급 장공장, 식료공장이 있다. 남포기초식품공장은 2000년 12월에 조업을 시작하여 간장·된장·식용유 등 기초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남포종합식료공장은 2012년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 당과류·물엿·두유·장아찌·차 등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강서약수공장은 2년간 현대화 공사를 거쳐 2003년 10월 21일 조업하였으며, ‘장수 보약’이라는 브랜드의 약수를 생산한다. 연건평은 7,180여㎡, 부지면적은 27,000여㎡로 확장되었고 생산능력도 종전 대비 약 10배 증가하였다. 동 공장의 생산공정은 빈 병 투입으로부터 상표가 붙은 약수병을 상자에 담아 출하장으로 보

5) 「지방 발전 20×10정책」은 매해 지방공업공장을 20개 군씩 건설하여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전국 지방주민들의 물질생활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는 마지막 공정까지 자동화되었다.⁶⁾

이외 도내 주민들에게 공급할 신발, 가방, 종이, 화장품, 각종 일용품, 식용유 등을 생산하는 강서 신발공장, 남포영예군인신발공장, 남포경공업공장, 항구·대안·룡강·온천 종이공장, 강서비누공장·강서화장품공장, 강선철제일용품·대안수지일용품 공장, 천리마·강서·온천식용유공장 등이 있다.

중앙급경공업 공장으로는 제분공장과 피복공장이 있다. 항구구역에 소재한 남포제분공장은 연간 15만톤의 밀가루 생산능력을 갖추고 밀가루와 국수를 생산한다. 동 공장은 남포항으로 수입한 밀을 사일로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한 다음 밀가루와 국수를 생산하여 평양과 남포시의 급양기관에 주로 공급하며, 일부는 탄광·광산 등 주요 생산 단위에도 공급한다.

또한, 남포시에는 북한에서 이름 있는 무역회사인 봉화 지도국과 은하 지도국 산하 의류가공공장인 피복공장이 있다. 이들 공장은 중국에서 들여온 섬유 원부자재를 가지고 섬유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2017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로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현재는 내수용 의류를 생산한다.



강서약수공장에서 근무 중인 북한 주민. 강서약수공장은 2년간 현대화 공사를 거쳐 2003년 10월 21일 조업하였으며, '장수 보약'이라는 브랜드의 약수를 생산한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표〉 남포에 있는 중앙급 수출 피복공장

구분	소속	소재지
남포봉화피복공장	봉화지도국 산하	항구구역
와우도봉화피복공장		와우도구역
강서봉화피복공장		강서구역
와우도은하피복공장	은하지도국 산하	와우도구역
강서은하피복공장		강서구역

바. 기타

수산업에는 남포수산사업소와 령남수산사업소 그리고 10여 개의 수산협동조합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조직된 수산작업반, 수산분조가 있다. 화학공업에는 남포어린이제약공장, 와우도·강서·룡강제약공장 그리고 남포염료공장, 남포제염소 등이 있다. 채취공업에는 룡강화강석광산, 룡강돌광산, 남포섬록암광산, 강서탄광이 있으며 전기·전자공업에는 대안전기공장, 남포전극공장, 룡강전자기구공장, 남포수출전자기구공장이, 농업에는 대안 젓소목장과 수십 개의 협동농장이 있다.

6) 이석기와, 『북한의 기업』, 산업연구원, 2014.p.109.

4. 특징

가. 양호한 산업인프라

남포시는 항만을 비롯한 산업인프라가 일정 부분 갖추어져 있어 남북경협 시 물자 운송에 유리하다. 전술한 것처럼 남포시에는 북한 최대의 항만시설인 남포항과 대형 선박수리를 위한 령남배수리공장 그리고 군용비행장인 온천비행장이 있다.

북한은 과거 남포제련소 부지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항만 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가 있어 전력 수급에도 좋은 조건이다. 특히 대동강과 서해를 끼고 있어 남북 협력 시 전력선을 이용한 전력 공급 조건도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양한 산업기반

남포시의 섬유산업, 자동차산업, 조선 및 수리조선 산업은 여타 산업보다 발전 잠재력이 크다. 남포시에는 섬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 피복공장과 도내 공급을 위한 섬유공장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기술력과 인력수급에 양호하다.

남포시에 있는 섬유공장들은 수십 년간 수출 섬유 생산을 통해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관련 기술자와 기능공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능공 조달이 중요한데, 남포시는 약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약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평양시가 인접하여 있어 노동력 수급에도 유리하다.

남포시는 1995~2000년까지 한국기업의 위탁가공 생산 지역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임가공 경험이 있다.

북한에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청진버스공장·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있으나, 평화자동차공장을 제외한 여타 공장에서는 승용자동차가 생산되지 않는다. 1998년 남북 합영의 조립식 자동차 공장인 평화자동차 공장이 신설되면서 첫 승용자동차 생산공장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자동차 생산 경험을 가진 기능공들이 탄생하여 향후 자동차 공업 협력에도 유리하다. 

남포는 근현대사의 남포불(lamp의 일본어식 표기)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컨설팅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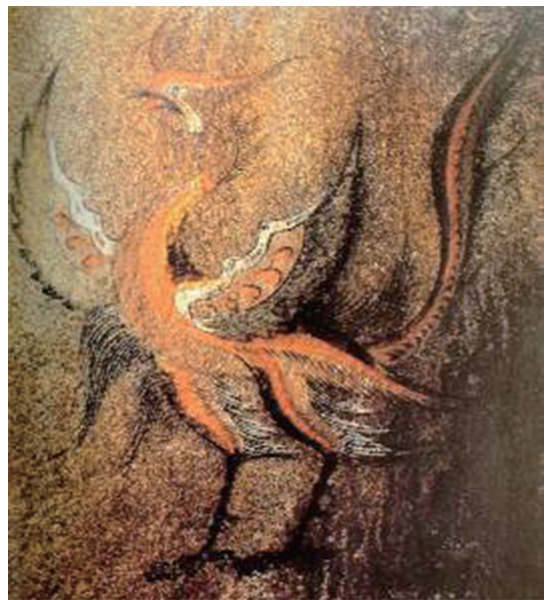
그곳에 남포가 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하류로 50km 내려가면 남포항이 있다. 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인 것처럼 남포항은 평양의 관문이다. 인천항이 한강 하류에 있듯 남포항은 대동강 하류에 있다. 원래는 대동강 하류 삼화현의 한 20호 정도가 살던 작은 포구에 ‘남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고려 시대 말에 증산(甑山;시루뒀)의 남쪽에 있는 포구라 하여 “증남포(甑南浦)”라 불리다 후에 ‘남포’가 되었다.

항구도시 남포는 100만 명이 사는 남포특별시다. 서해안의 무역항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의 대련, 천진, 청도, 상해 등과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항구도시가 그렇듯이 남포 역시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 지역은 예부터 가축과 쌀, 소금, 콩, 술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동강 유역에는 일찍이 고조선때부터 문명이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강서 구역의 강서삼묘,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수산리 고분, 룡강군의 룡강대총과 쌍영총 등 고구려 시대의 무덤들이 남아 있으며 200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서기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 남포지역은 수도를 지키는 서쪽 관문 역할을 하였다. 남포는 고려 시대 서경(西京)인 평양의 속현으로 소금, 한지, 생약 제조, 물고기 가공, 직조업, 갑옷 생산, 화살 제작 등의 수공업에 포함 산업이 활발했다. 조선시대에는 목화 생산과 철광 개발도 이루어졌다.



남포의 강서중묘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 주작도. 서기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이후 남포 지역은 수도를 지키는 서쪽 관문 역할을 하였다.

제너럴셔먼호, 청일전쟁 그리고 진남포

한반도 서해는 대륙과 반도 사이에 막혀 있으며 갯벌이 넓고 수심이 깊지 않아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대동강은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남포에서 평양까지도 흘러 올라갔다. 이 물길을 따라 많은 배들이 다녔다.

1866년 8월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남포를 거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평양에서 통상을 과도한 방법으로 요구하다 배가 소각되고 선원들이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배에는 통역을 담당 한 영국인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도 타고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 때에 일본군은 남포항에 상륙하고 항구를 병참기지로 사용했다. 일본은 남포

지명에 군사적인 의미가 강한 "누를 진(鎭)"자를 덧붙여 진남포(鎭南浦)라 명했다. 1897년 10월에 남포항은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개항장에는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의 공동조계(각국조계)가 설치되었다. 조계지는 한일병탄 직후인 1914년까지 운영되었다.

1915년 일제는 남포항일대 간석지에 항만을 축성하여 1만 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진남포항을 만들면서 남포는 본격적으로 무역항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북한의 다른 주요 항만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남포 또한 일제가 개발한 도시였다.



일제강점기 진남포항의 모습

진남포항을 통한 자원의 이동

일제는 평안도지역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무연탄은 석유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철도와 산업 및 가정의 연료, 그리고 해군의 군함 연료로 필수적인 전략물자였다. 평안도 주민들은 무연탄을 채굴하여 가정 연료로 일부 이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1880년대부터 평안도 지역의 무연탄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규슈지역에서만 무연탄이 채굴되고 있었다.

일본은 평안도 지역의 무연탄을 해군 군함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무연탄을 수송하는 항구로 대동강 하류의 하천항만인 진남포항을 선택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진남포의 보급기지로서 가치는 이미 입증된 상태였다. 일제는 먼저 진남포항까지 철도 연결을 추진했다. 1910년 평양역에서 진남포항까지 55km의 평남선 철도를 개통했다. 평남선은 서울-평양을 잇는 경의선과 연결이 되었고 서울 이남인 경부선과도 이어졌다.

평남선 철도와 진남포항을 통해 평안도 지역에서 채굴된 무연탄과 철광석 같은 각종 자원이 일본의 군사용 연료기지 등으로 보내졌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연탄에 대한 일반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수요가 높아졌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군용으로 사용하던 석탄 생산을 민간회사도 생산하도록 허용했다. 이후 평안도 지역의 무연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33년의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진남포항의 화물 수출입량은 112만 톤, 연안 운송을 합하면 150만 톤이었다. 당시 대동강을 이용한 수출입 총량은 198만 톤으로 한반도 항구 중 최대규모였다. 진남포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 43만 톤, 쌀 약 135만석(약 20만 톤), 콩 20만석(약 2.6만 톤), 사과 9천 톤 등 합계 약 70만 톤 규모였다.

산업도시 남포의 성장

진남포항을 중심으로 남포지역 일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1910년 진남포항이 철도와 연결되면서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평양과 진남포항을 잇는 평남선이 개통되던 해 광산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제작, 수리하는 공장이 세워졌다. 1915년에는 일본광업에서 금, 은, 동광 등을 제련하는 <일본광업 진남포제련소>가 세워졌다. 1936년 10월에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183m 굴뚝을 세웠고 1941년에는 5만 평의 부지에 제련광량 22만 톤, 종업원 수 4,600명 규모의 조선 최대의 제련소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진남포항

남포가 공업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공업 분야의 공장도 들어섰다. 조선방직의 면생산공장이 진남포에 들어섰고 일본의 도멘섬유(도멘:2006년 도요타통상에 합병된 일본 종합상사)의 직물공장이 세워졌다. 그리고 정미소, 제분소, 제염소, 양조공장 등이 들어섰다. 1924년 진남포 위에 있는 룡강에 합자회사 진천양조사회가 설립되었다. 설립자 장학엽은 보통학교 국어선생을 하다 사직하고 양조회사를 차렸다. 그 상표는 <진로(眞露)>였다. 장학엽 사장의 고향인 룡강군 진지리(眞池里)의 진(眞)을 따고, 증류주인 소주가 이슬처럼 맺히는 모습에서 이슬 로(露)를 따서 지었다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 브랜드인 '진로'는 이렇게 태어났다. 진로는 해방이후 내려와 서울 영등포 공장을 짓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남포는 한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 갑작스럽게 고려청자 생산지로 유명해졌다. 남

포에서 고려청자가 생산된 계기는 이채롭다. 1876년 일본과 조선의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무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골동품 고려청자의 인기가 높아졌다. 청자를 구하기 위해 조선에 온 일본인 도미타 기사쿠는 이러한 인기를 이용하여 역으로 1908년 남포에 삼화고려소란 도자기 제조업체를 차렸다.

일본에서 도공을 데려다가 고려청자를 재현하여 1911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일종의 고려청자 모조품의 수출이었다. 남포의 일본 기업에서 생산된 고려청자는 일본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남포의 특산품이 되었다. 일본인 수집가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한 일본인 사업가의 사업전략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군수공장, 중화학공장들이 대거 들어서는데 입지가 좋은 남포가 그 역할을 했다. 비행기와 군함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연료전지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각종 군용 화학제품 등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일본기업 미쓰비시는 남포에 제강소를 건설해 탄소강과 합금철을 생산했는데 주로 방탄용 철판을 육해군에 공급했다.

이렇게 건설된 남포의 중화학공업 공장들은 해방 이후 북한정권이 중공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항만과 철도의 개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대동강 하구의 어촌 도시였던 남포는 한반도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급성장했으며 해방당시 인구 10만명 규모로 한반도에서 열 번째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지역에 싹튼 민족의식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역은 조선시대까지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으며 지역 정서에 권력과 세도가들을 향한 저항 정신이 배어 있다. 이 뿌리 깊은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신문물과 개혁/개방적인 문화를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평안도의 중심도시인 평양의 배후 도시였던 남포지역 역시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 개항장이라는 특성에 따라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남포는 민족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부를 품고 일제와 부딪친 곳이기도 하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조선 의병장이 되기 전에 남포에서 교육 사업을 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인 안중근은 근대화를 위해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1906년 가족들과 함께 남포로 이주하여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계몽교육을 시작했다. 안창호, 이준 등 애국지사들을 남포에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가톨릭 계열의 남포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국운이 이미 기운 1907년 남포에서 교육계몽 운동에 앞장서던 안중

근은 노선을 바꾸어 의병항쟁에 뛰어든다. 남포에서 안중근의 약 2년간에 걸친 교육사업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어졌다. 안중근이 세운 삼흥학교 자리엔 지금 남흥중학교가 있으며 인근 남흥공원에는 1963년 안중근 기념비가 세워졌다.

남포는 1919년 3.1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 중 하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 벌어진 만세운동을 생각한다.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곳은 비단 서울만은 아니다. 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이북지방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남포 지역의 3.1운동은 남강 이승훈이 진남포에 직접 내려와 105인 사건 때 함께 옥고를 치른 임치정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승훈은 임치정을 비롯해 진남포의 인사들과 만나 만세운동을 모의하였는데, 당시 삼흥학교 교장 홍기황이 적극 찬동하여 2월 중순경 학교 건물에서 비밀모임을 가졌다. 이날의 결의에 따라 학교 등사기로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신흥동 감리교회 마당에 5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대한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세우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자 군중들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행진을 시작하였다. 중심가에 도착하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진남포경찰서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이 자리에서 70명이 넘는 시위 군중이 체포되는데, 이때 이승훈도 함께 붙잡혔다.



남포에 있는 안중근 기념비. 황해도 해주 출신인 안중근은 근대화를 위해 애국계몽운동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1906년 가족들과 함께 남포로 이주하여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계몽교육을 시작했다.

남포, 한민족과 한반도의 남포불이 되어

해방 후 일제가 명명했던 진남포는 다시 남포로 이름이 바뀌었고 6.25 한국전쟁의 폐허를 경험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북한의 산업화 전략에 따라 제련, 기계, 유리, 조선, 화학공업과 수산업 그리고 소비재 경공업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다.

1990년대 이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대우그룹이 남북경제협력 사업 차원에서 남포에 민족합영총회사를 세워 의류봉제공장을 운영하였으며 통일교 계통의 평화자동차 공장이 남포에서 승용차를 생산한 바 있다. 2010년까지는 인천-남포 사이

에 정기 화물선이 다니기도 했다. 북한으로 가는 식량, 비료 등 인도 지원 물자가 주로 하역되는 항이 남포항이었다.

남포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자원개발과 산업발전, 남북경제협력의 불을 밝히는 일종의 남포불 (lamp의 일본어식 표기) 역할을 했다. 근대사 역사의 변곡점마다 남포는 그 나름의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롭게 밝힐 남포만의 남포불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할이 단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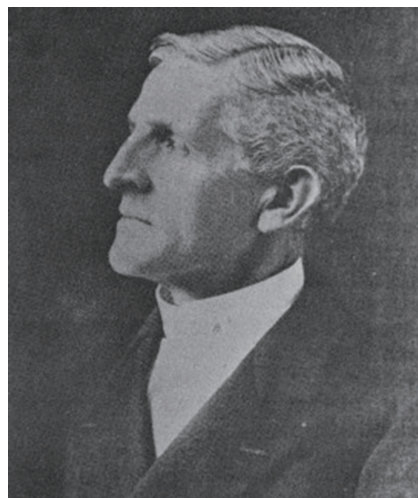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1. 초기 조선선교사들의 평안도 선교

1885년 선교사의 조선 입국이 시작된 이후 초기의 선교사들은 주로 서울에 정착했다. 이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선교사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90년을 전후하여 선교사들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남포의 교회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평양선교의 역사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남포는 평양의 외항으로 각 선교회의 평양지부에 속하여 평양선교의 연장선상에서 남포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평안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미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이다. 그는 1887년 4월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지역을 방문하였고 1887년 평양과 의주에 권서인을 파송하여 두 지역에 교인이 생겼다. 평양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서구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였다. 또한 개항장도 없었으므로 평양은 조선 제 2의 도시였음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

1892년 8월 미감리회의 맬렐류(M. F. Mallalieu)감독은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5)을 평양 주재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윌리엄 제임스 홀은 서울 보구여관에서 사역하고 있던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선교사와 결혼 후 평양으로 이주하였고, 조선인 전도자 김창식을 통해 평양에 기와집 두 채와 초가집을 구입하여 사역을 시작한다. 평양은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의 주 무대가 되었는데, 당시 청·일 양국은 외국인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얻게 될 해당 국가로부터의 반발을 염려하여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을 공격하지 않았다. 또한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도우며 평양 주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호의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감리회와 평양의 성도들은 1896년 평양 시



평안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미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이다. 그는 1887년 4월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지역을 방문하였다.



**Messrs. Moffett, Lee, and Swallen in 1893.
Starting from the Heron residence in Seoul
for the trip to Pyeng Yang, to open the Station.**

사무엘 마펏(Samuel A. Maffett, 마포삼열, 1864~1939)은 그레함 리(Graham Lee, 이갈함, 1861~1916), 스왈른(William L. Swallen, 소안론 1865~1954)과 함께 평양에 선교부를 개척하게 된다. 평양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damiensohn0307>)

내가 보이는 남산재 언덕에 예배당을 마련하였는데 이때부터 평양감리교회는 남산현교회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예배당 주변에 감리교의 여러 부속기관이 생기며 남산현교회는 감리교 평안도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

장로교에서 평양에 배정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사무엘 마펏(Samuel A. Maffett, 마포삼열, 1864~1939)이다. 그는 1890년 1월 25일에 조선에 입국한 후 한국어 학습과 적응훈련을 하는 한편 언더우드 선교사가 출판관련 업무로 일본에 머무는 동

안 언더우드의 고아원을 맡아 운영하는 등 선임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조하였다. 마포삼열은 1890년 8월에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의 북부지역에 대한 답사를 나섰다. 당시 여행의 내용을 설명한 마포삼열의 편지를 보면 1890년 당시 이미 감리교 선교부는 평양에 현지 설교자를 두고 있었는데 감리교 설교자들의 집회에는 18명이 출석하고 있었다. 마포삼열과 아펜젤러는 그중 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행을 통해 마포삼열은 평양에 선교본부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였고 이후로도 마펏은 1891년에 평양과 의주를 네 번이나 방문하였는데 그는 조선북부 선교의 거점으로 의주와 평양을 두고 고민을 이어갔다. 마펏은 1891년 가을에 의주에 선교거점으로 사용할 가옥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선교거점으로 평양을 선택한다.

이 먼 여행을 통해 저는 북부 선교지부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북부 사역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평양을 먼저 점유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주는 중국 국경에 있는 2-3만 인구의 도시인데, 만주의 목단과 뉴창과 한국의 평양으로부터 각각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5-10만 인구가 사는 19개 도시와 그 도시들의 구역들을 포함하는 사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도시는 과거엔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활기찬 도시였지만, 조약 항들이 개항된 이후 인구가 줄어들고 무역이 쇠퇴했으며 대부분의 무역은 항구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인 평양은 인구 7-10만의 도시인데, 서울 이북에서 가장 큰 도시

입니다. 평양은 서울, 원산, 의주로부터 똑같이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을 거점으로 사역할 지역은 그 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주와 그 남쪽에 있는 황주를 포함하는 39개 도시와 그 구역들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거기서 채굴되기 시작한 좋은 무연탄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선교거점이 될 것입니다.¹⁾

결국 마펫은 그랜햄 리(Graham Lee, 이길함, 1861-1916), 스왈른(William L. Swallen, 소안론 1865~1954)과 함께 평양에 선교부를 개척하게 된다. 당시 외국인들은 서울 혹은 개항장에만 거주할 수 있었고 서울과 개항장을 벗어나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했다. 평양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적은 원산, 부산에 선교사가 먼저 정착한 이유는 바로 두 도시가 개항장이었던 까닭이다. 마펫과 감리교의 윌리엄 홀은 조선인 신자의 도움을 받아 평양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정착한다.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구매와 거주문제에 의해 선교사들은 평안도관찰사와 갈등을 빚었으나 양반가 출신 성도인 한석진 등의 도움을 받아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다.

18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 조선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 각 교단, 선교부 간에 이루어지던 선교지 분할의 협의는 1905년 ‘복음주의 연합공의회’ 결성을 통하여 체계화된다.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는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장로회, 캐나다장로회와 미감리회, 미국 남감리회의 장로교와 감리교를 아우르는 6개 선교부가 연합하여 설립한 회의이다.²⁾ 교계예양(敎界禮讓, comity)이라 불리는 ‘선교지 분할 협정’(Division of Territory)은 “가장 빈번한 불화의 요인이었던 선교지의 중첩을 피하고, 돈과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실행되는 것임이 공식화되었다.³⁾ 연합공의회가 설립되던 1905년에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남감리회 간 협정이 있었고, 1907년에는 북장로회와 남감리회 사이에 협정이 마무리되었다. 조선의 도시들 중 5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2개 이상의 선교회가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지역인 서울(미감리회, 남감리회, 북장로회)과 평양(미감리회, 북장로회), 원산(남감리회, 캐나다장로회)은 각 교단이 공동으로 선교를 이어가게 되었다. 당시 남포는 각 선교회의 구분으로 평양 선교부에 속하여 미국북장로회와 미국감리회의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은 북한지역의 선교지 분할 구역을 정리한 표이다.

1) 엘리우드에게 보낸 마펫의 편지, 1892년 3월 17일자. M L, 129-31.를 최영근, 「초기 미국선교사, 언더우드와 마펫 비교연구」 2001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35.에서 재인용

2)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장로교회와 신학』 8권(서울: 한국장로교신학회, 2011) p. 201

3) Underwood, H, “Division of the Field.” 『Korea Mission Field』 December, 1909. p. 213을 박경수, “한국 개신교 초기 교회 연합 운동의 유산,” p. 214에서 재인용.

담당 선교회	지역	본부	주요 도시
북장로회	황해도	재령	봉산,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재령, 평산, 서흥 일부, 수안 일부
	평안남도	평양	평양, 안주, 속천, 영유, 순안, 강동, 자산, 삼등, 중화, 상원,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은산, 맹산, 성천, 강서 일부, 증산 일부, 용강 일부
	평안북도	선천, 강계	의주, 용천, 철산, 선천, 객산, 정주, 가산, 박천, 구성, 삭주, 창성, 벽동, 초산, 위원, 강계, 자성, 후창
캐나다 장로회	함경남도	원산, 함흥	남감리회가 관할한 함남의 남포도시들 (안변, 회양, 용동)을 제외한 함경남도 전 지역
	함경북도	성진, 회령	성진, 회령, 종성, 경성 등 함경북도 전 지역
미감리회	황해도	신계	웅진, 강령, 해주, 연안, 배천, 평산, 신계, 봉산 일부, 수안 일부, 서흥 일부
	평안남도	평양, 진남포, 맹산	평양, 양덕, 함종, 진남포, 삼화, 맹산 일부, 개천 일부, 은산 일부, 순천 일부, 강서 일부, 증산 일부, 강동 일부, 용강 일부
	평안북도	영변	태천, 운산, 희천, 영변
남감리회	경기도	송도	송도(개성)
	함경남도	원산	원산, 회양, 안변, 용동

표1 북한지역 교단별 선교지 분할 현황(1909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기독교문사, 1990, pp. 216-217;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1999, 한신대학교, p.35 참조

2. 조선선교 초기 각 선교회의 남포선교

1) 장로교의 남포선교

1893년은 조선의 장로교 공의회가 조직되고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해이다. 이전까지 조선에는 1884년(혹은 1885년) 세워진 소래교회, 1887년 새문안교회를 비롯하여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모임이 존재했을 뿐이다. (현재 주소 기준)남포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용강군의 죽본리교회도 1893년에 설립되었다. 방기창, 송린서 등의 전도로 용강군에 결신자들이 생긴 후 성도들의 집을 순회하며 예배하였고 교인이 증가하자 1893년 죽본리에 기와 집 6칸을 매입하여 예배당을 삼아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죽본리교회 교인 중 김승원이 안식교로 옮겨가고 송창걸은 자유교회로 옮겨가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으나 방기창이 전임사역자로 교회를 돌보며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다.⁴⁾

강서지역의 첫 교회는 탄모리(탄포리)교회이다. 장로회 사기는 “전도인 안창호가 평

4) 차재명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66

양으로부터 탄모리에 와서 전도를 하였고 믿음을 갖게 된 신자들이 그를 따라 평양의 판동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던 중 1894년 11명의 신자가 안창호의 집에 모여 교회를 시작했다.⁵⁾ 고전한다. 같은 해 안창호의 전도로 강서군에는 청산포교회가 설립되었다. 탄포리교회는 시골 교회였으나 안창호의 영향으로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유학을 간 학

생들이 많아서 여름이 되면 그들이 귀향하여 각종 강연회와 사경회를 열었다.

구 진남포시(현재의 남포 시내)에 한정하면 최초의 교회는 1896년에 설립된 노정교회이다.⁶⁾ 장로회 사기는 “방기창의 전도로 이승락이 믿기 시작하고 이후 최경현, 이승진이 믿기 시작하여 양화리교회에 왕래하더니 진남포 비석리 청년회에서 고승진을 파송하여 전도하여 신자 7, 8인이 증가하였다”고 기록한다.⁷⁾ 여기에 등장하는 비석리교회는 1897년에 세워진 교회로 비석리교회에서 전도인을 파송한 일은 역시 1897년 이후의 일이다.

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비석리교회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비석리교회는 1897년에 용정리(현재의 와우도구역 용정동)에 세워졌으나 성도가 늘어나 1909년 비석리(현재 항구구역 비석동)로 이전하여 비석리교회로 이름을 바꾼다. 1912년 정석홍이 장로가 된 이후 수많은 장로가 장립되었으며 1909년 남포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득신학교, 득신유치원, 득신 고등성경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수백원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차재명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 역사연구소, 2000-2002); 홍만춘, 『평서노회사』 (서울: 불림출판사, 1998); “재산목록” 조선 감리회 9회 (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5) 조선예수교 장로회사기, 74, 탄포리교회 장로였던 안창호(도산 안창호의 형)의 딸인 안성걸 여사의 회고록에는 도산 안창호가 1885년 탄포리교회와 점진학교를 세웠다고 전하며, 도산 안창호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 기록에는 도산안창호가 1899년 강서군 동진면 암화리에 점진학교와 탄포리 교회를 세웠다고 전한다. 일부 기록에는 장로회 사기가 전하는 안창호(安昌鎬)는 도산 안창호(安昌浩)와 다른 한자를 쓰며, 1894년은 도산 안창호가 16세로 가출하여 서울의 구세학당에 입학한 해이므로 탄포리교회를 개척한 안창호는 도산 안창호와 동명 이인이라고 기록한다. 탄포리 교회의 개척자와 개척 년도에는 혼란이 있으나,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탄포리교회의 개척시기부터 안창호, 안치호 형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6) 조선예수장로회사기.

7) 장로회사기 81



남포, 강서, 용강 지역의 장로교 초기 역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방기창 목사(뒷줄 가장 왼쪽)이다. 그는 강서의 반석교회, 고창교회, 송호교회, 남포의 노정교회, 예명교회, 용강군의 용강읍교회 등을 개척했다.

에서 많을 때는 4천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참고로 당시 목사의 월급은 40원 내외, 조사의 월급은 30원 내외였다.⁸⁾ 비석리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1919년에는 몇몇 성도들이 1천200원 상당의 6칸의 기와집과 대지 144평을 헌금하였으며, 만주의 이지는 목사를 비롯하여 남포 주변 예명교회와 남포시내의 첫 교회인 노정교회에도 홍치림, 고승진 등의 사역자를 파송하여 사역을 돕게 한다. 비석리교회는 장로회 총회록에도 거의 매

년 등장하는데, 비석리교회에 대한 주요 보고는 선교활동, 예배당·사택 증축, 성도들의 거액의 헌금, 성도의 증가로 인한 교회분립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다. 비석리교회를 담임한 송영길 목사는 방기창 목사의 사돈이 되는 송관범, 송흥범 장로의 5촌 조카로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산정현교회 부목사로 주기철 목사의 사역을 도우며 9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 남포로 돌아와 비석리교회를 담임하며 평서노회 소장파의 리더가 되어 노회 내 강량옥의 기독교연맹 세력을 견제했다. 송목사는 1949년 4월 19일 소위 남포 4.19로 불리는 남포 기독교인들 검거 열풍에 체포되어 8년형을 받고 복역 중 6.25 전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포, 강서, 용강 지역의 장로교 초기 역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방기창 목사이다. 그는 1851년 황해도 신천군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한학을 하였고 32세때 천도교에 귀의하여 황해도 접주, 도읍도령장으로 활동했다. 1893년에 평양에 정착한 마뻬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널다리골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평양송인, 송덕학교 교사로 봉직했다. 방기창은 기독교인이 된 직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를 다니며 전도활동을 했고 1895년에 매서인(賣書人)으로 임명받았다. 1901년에는 길선주와 함께 장대현교회 장로로 장립받았으며, 1901년 평양신학교가 개교할 때 첫 신학생이 되어 1907년 1회 졸업 후 안수를 받아 조선의 첫 목사 7명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강서의 반석교회, 고창교회, 송호교회, 남포의 노정교회, 예명교회, 용강군의 용강읍교회 등을 개척했다. 그는 1911년 10월 11일 61세의 나이로 소천한다.

진남포가 위치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조선장로교에서 교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었다.⁹⁾ 조선장로교는 급속하게 성장하여 독노회 조직 5년째인 1912년에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총회 산하에 평남노회(남평안노회)가 생기고 평남노회는 교세를

8) 서평양노회사 128.

9) 1907년 장로교 독노회가 조직될 당시 장로교 전체 교인 72,968명 중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성도를 합한 수는 43,190명 이었다. 1907년 장로회 공의회록을 홍만춘, 『평서노회사』 (서울: 늘봄출판사, 1998) p.154에서 재인용.

확장하여 1921년에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로 나누게 된다. 평양노회는 평양부, 대동군 동남부, 중화, 황주, 수안, 곡산, 남궁리, 말메골, 사회골, 관산, 칠골, 안골, 송산, 성천, 강동을 포함하였고, 평서노회는 진남포, 용강, 강서, 평원군 서남부, 대동군 서남부를 포함하였으며 안주노회는 덕천, 영원, 맹산, 순천을 포함하였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현재의 남포시와 과거 평서노회의 구역은 90% 이상이 겹친다. 평남노회로부터 분립된 다음 해인 1922년 평서노회는 선교사 2인, 조선인 목사 15인, 조직교회 45개, 미조직교회 12개, 처소 세례교인 3,680명으로 교세가 성장한다.¹⁰⁾

2) 감리교의 남포선교

감리교는 1896년 10월경 남포 선교를 시작하여 1897년 3월 비석리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교회는 이후 신흥리로 이전하여 진남포 순회구역의 중심교회가 된다.¹¹⁾ 1905년 미감리회 한국선교연회의 보고를 보면 미감리회 조선연회는 평양, 경기, 영변, 서부의 4개 지방회 산하 총 23개 구역을 둔다. 당시 감리교의 전체 성도수는 18,107명이었는데 그 중 평양지방회 산하 평양서구역은 대동군(현재의 평양서부 대동구역)과 강서, 용강, 진남포(이상 현재의 남포)를 포함하는데 선교사들이 모두 평양구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평양서구역에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구역의 성도 수는 2,987명으로 조선전체 연회의 15%가량의 인원을 차지하며 평양서구역에서 걷힌 헌금 또한 조선전체 전체 헌금의 25%를 감당할 정도로 성장한다.¹²⁾

남포지역의 감리교회는 성도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였으나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설립되기까지 독립적인 지방회로 분리되지 못하였다. 1930년 조선에서 활동하던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합병하면서 총회 산하에 동부, 중부, 서부연회와 만주선교



평서노회 제1회 회의록에 수록된 '평서노회 서문' 평서노회는 1922년 2월 2일 진남포 비석리교회에서 목사 12명, 장로 39명이 모여 조직됐다. (사진출처: 기독교신문)

10) 홍만춘, 『평서노회사』 p. 188

11) “진남포 신흥리교회” (기독교신보) 1929.11. 6를 김진형, 『수난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p. 180에서 재인용.

12) “Statistics” in Official Minutes and Report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1905)를 이덕주, 『한국감리교회역사』 p. 65에서 재인용.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차재명 『조선장로회 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홍만춘, 『평서노회사』 (서울: 늘봄출판사, 1998); “재산목록” 조선 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회가 조직되었다. 평안도는 서부연회에 속하여 그 산하에 평양, 영변, 진남포지방회가 설립되었다. 이때 진남포지방회에는 진남포, 용강, 삼화, 강서, 증산, 함종이 소속되었다. 진남포지방의 교세는 급성장하여 1932년 제2회 연회에서는 진남포지방에서 강서 지방회가 분리된다. 1931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연회록을 보면 조선 전체 감리교 교인

58,525명 중 평양지방회 교인이 3,730명 진남포지방회 교인이 4,379명이었다.¹³⁾ 진남포의 성도 전체 비율은 전 조선감리교인의 10분의 1에 미치며, 재정 자립도도 매우 높아 진남포지방회는 1930년대 초 감리교의 전 지방 중 유일하게 목회자의 급료를 지급한 지방회였다. 연회 부담금 역시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제2차 합동연회 때 진남포지방 감리사 임두화는 진남포지방의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기독교 조선감리교 내에서 목사와 감리사를 많이 산출하기로는 진남포지방이 제일인 줄 아는 동시에 총리사 되신 분까지라도 이 지방에서 산출한 것은 본 지방에서 큰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2. 지방적으로 남녀교역자들에 대하여 순전히 자치하기는 진남포지방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3. 본 지방내 14구역과 남녀 교역자들이 지방 사업에 열심히 협력하여 약한 구역을 상조하여 구역 유지를 잘하게 합니다.¹⁴⁾

진남포의 신흥리교회는 1897년 비석리에서 시작한 교회로 개척 6년 만인 1905년에 8칸의 기와집을 지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도로 인해 건물을 지은 직후에도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비좁았다. 1906년 무어 선교사는 진남포에 1,500명 이상

1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 84

14) 기독교조선감리회 제1회 연회록 1931, pp.197-205를 『북한교회사』 84에서 재인용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감리회 선교부는 1912년에 가서야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였다. 무어 선교사는 선교사들 사이에서 선교비 모금에 재능이 있는 선교사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남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2,500달러를 모금하였다. 예배당은 550명을 수용 가능하도록 지어졌는데 이는 조선 북부에서 평양 남산



현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였다. 그럼에도 신흥리교회는 공간이 부족하여 제2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교회회를 세웠다. 신흥리교회는 강서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김일성이 존경한 목사인 손정도 목사가 1909년부터 1910년 만주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1년여 간 사역한 교회이기도 하다.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활동한 감리교인 중 유명한 인물로 전삼덕 전도부인이 있다. 1843년 강서군의 양반가문에서 태어난 전삼덕은 17세에 동향의 양반가 김선주와 혼인했다. 보령군수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보령에서 지내고 남편의 은퇴 후 강서군으로 돌아와 거주하였다. 강서군에서 지내던 중 기독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기독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하여 가마를 타고 평양으로 가 윌리엄 홀(W. J. Hall)선교사를 만난다. 그는 윌리엄 홀과 강서출신으로 윌리엄 홀을 돕던 조사 오석형을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신덕경, 세례문답, 미이미교회문답 등을 홀로 읽으며 신앙의 지식을 넓혔으며 며느리들을 전도하고 매주일 가마를 타고 남산현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1895년 그의 집을 방문한 윌리엄 스크랜턴(W. Scranton)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시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남자선교사와 대면하여 접촉할 수 없다 하여 방 가운데 휘장을 쳐 공간을 분리한 후 휘장 가운데 구멍을 뚫어 그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았다. 전삼덕은 1901년 그의 나이 59세에 전도부인으로 임명을 받아 함중에 파견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한 집에 소녀매일학교를 열고 교사로 봉사하였다. 당시 전삼덕을 임명한 에스티(E. M. Estey, 1876-1929)선교사와 감리교의 신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차재명 『조선장로회 사기 상, 하』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0-2002); 홍만춘, 『평서노회사』 (서울: 늘봄출판사, 1998); 『재산목록』 조선 감리회 9회(1938년) 연회록 부록,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1951);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900년대 초반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전도부인들. 전삼덕(아래쪽 가운데)은 1901년 그의 나이 59세에 전도부인으로 임명을 받아 함중에 파견되어 교회를 개척하는 한편 자신이 소유한 집에 소녀매일학교를 열고 교사로 봉사하였다.

학월보는 전삼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도부인은 충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함중 사역은 아주 흥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전삼덕은 좋은 집을 버리고 이 황량한 곳에 와서 훌륭한 전도인으로, 교사로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너 명 여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¹⁵⁾

학교 선생은 강서 김승지의 부인 전씨 삼덕씨라. 이 부인이 가산의 부요한 것과 자손들의 효양함을 밋기 원치 아니하시고 집을 떠나 타읍에 가서 외로이 계시며 학도를 배양하시니 참 이 부인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그의 뜻을 일우랴 하시는 부인일너라¹⁶⁾

전삼덕은 1910년 68세의 나이로 전도부인에서 은퇴한 후에도 강서지역 감리교회의 대소사에 관여하였으며 1917년 학동교회와 송덕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전도로 교인이 된 사람이 약 600명에 이르렀으며 1925년 2월 27일에는 학동교회에서 그의 전도로 설립된 아홉 교회가 연합으로 ‘전삼덕 여사 전도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그는 1932년 고향 강서에서 89세의 나이로 소천한다.

3) 여타 교단의 남포선교

성결교의 전신인 동양선교회는 1907년 국내 첫 교회인 서울의 무교정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이듬해인 1908년 조선의 두 번째 교회로 진남포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성도가 모이지 않아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동양선교회 본부는 진남포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1911년 다시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성결교의 지도자 이명직은 교회개척 실패의 이유로 교역자들의 경험부족, 개척자들의 집이 사역지와 가까운 관계로 사역자들이 사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사역자들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¹⁷⁾ 동양선교회를 모체로 하여 성결교단이 탄생한 이후 성결교 연회는 1929년 박정훈 전도사를 파송하여 진

15) Fif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p. 41을 이덕주, “여명기의 화덕 전삼덕,” 새가정 1986년 1월호 p. 84에서 재인용.

16) “신학월보,” 제3권 4호, 1903. 4. p. 150을 이덕주, “여명기의 화덕 전삼덕,” p. 84에서 재인용.

17) 이명직,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약사』, 87

남포성결교회를 개척하였고 같은 해 8월 전도부인 김옥현이 부임하여 사역에 더욱 활기를 얻는다. 진남포성결교회는 각종 부흥회와 순회전도단의 방문을 통하여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남포의 성결교회는 1936년 있었던 성결교 내분의 중심에 서게 된다. 성결교는 1933년부터 기존의 연회를 총회로 전환하여 조선인 목사 중심의 체제를 갖추었다. 초대 총회장에 오른 이명직牧사는 1932년부터 ‘자치선언’을 주장한 조선인 목사의 지도자이다. 그는 1934년 2차 총회에서 총회장에 연임하며 동양선교회의 조선인 이사들을 규합하여 재차 자치를 선언하여 선교사들과 갈등을 빚는다. 3차 총회에서는 이명직 목사보다 더욱 강도 높게 개혁과 자치를 부르짖은 소장파인 평양상수리교회의 변남성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되는데, 이명직 목사는 이에 충격을 받고 선교사들에게 총회 무효를 선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명직의 요청을 들어주어 동양선교회 산하 요직에 이명직을 복귀시키는 한편 변남성 목사를 파면한다. 이에 평안도의 목회자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반발을 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을 세운다.¹⁸⁾ 이때 변남성의 평양상수리교회와 더불어 진남포성결교회도 성결교단을 탈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다. 성결교단은 성도들이 떠난 평양상수리교회의 재건에는 실패했으나 진남포교회는 성도들이 남아 명맥을 유지했다. 1938년에는 50명의 교인이 출석했으며 성결교 특유의 저돌적인 사역과 부흥회를 개최하며 진남포에서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던 중 1943년 일제의 성결교 강제 해산 시 폐쇄된다.

그 밖에도 1917년 구세군의 권태화 사관과 강형원 사관이 진남포를 개척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¹⁹⁾ 그 뒤로 교회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침례교는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 지역 그리고 만주, 연해주 사역에 집중하였으므로 평안남도 지역 선교에 관한 기록은 없다.

3. 남포의 교육사업

남포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점진학교, 천주교가 설립하고 안중근이 관여한 삼흥학교, 장로교의 득신학교, 감리교의 삼송학교가 있다.

점진학교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1899년 안창호가 고향 강서군에 내려와 세운 학교이다. 점진학교는 김상현 성도의 집에서 서당식으로 신학문 교육을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4년 중학교 2년을 졸업하면 남자는 평양의 숭실학교 3학년, 여자는 송의학교 3학년에 편입됐다. 점진학교는 남녀공학을 실시한 최초의 초등과정 학교로 도산 안창

18)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1948년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로 발전하였다. 각 교단이 이단으로 구분하는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와는 다른 기관이다.

19) 구세군대한본영, 『한국구세군사』(서울: 구세군대한본영, 1976) pp. 21-22.



1932년 점진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 점진학교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1899년 안창호가 고향 강서군에 내려와 세운 학교이다.

호 사후에도 안창호의 형 안치호가 운영을 맡아 해방 전후까지 이어졌다.²⁰⁾ 점진학교 출신으로 정남주 목사(나사렛 대학교 설립자), 안택결(안창호의 조카, 대한민국 첫 여성 경찰서장) 등이 있다.

미감리회가 남포에 설립한 학교로 남자삼송학교(1899년 설립)와 여자삼송학교(1901년 설립)가 유명하였다. 두 학교는 모두 남포의 일류학교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1929년 당시 교사가 8명, 학생이 340명인 대형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감리교의 두 학교는 모두 초등과정의 학교였던 반면 장로교는 유치원부터 고등 과정에 이르는 독신학교를 운영하였다. 독신학교 산하에 독신유치원, 독신보통학교도 있었지만 남포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교는 평서노회 산하의 독신고등성경학교이다. 독신학교는 1899년 남포 용정리에 위치한 용정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908년 3월 15일 정식으로 정부에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설립자로 마포삼열 선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1912년에는 비석리교회건물에서 독립하여 학교의 교사를 건축하였고 1921년에는 2층 총 36칸의 규모로 교사를 증축하였다.

일제 말기 1940년 독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전홍경 장로는 일제의 수탈로 악화된 학교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수의 일대기 무성영화인 “왕 중 왕”을 상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목과 내용이 천황의 권위를 손상한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전홍경 교장이 구속되었다. 그 이후로도 일제 말 치안유지법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진남포의 면려청년회 활동을 하던 교사들과 학생들이 구속되었고 전홍경 교장의 후임자인 박정기 교장도 1941년 국어(일본어)상용 행정명령 위반혐의로 교장직을 박탈당하고 1942년 이영대 교장이 취임하였으나 결국 독신학교는 1943년 폐교되어 학교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다.²¹⁾

4. 해방 이후 남포의 교회와 성도들

1) 남포의 기독교 박해와 성도들의 월남

강서지역의 대표교회로는 1896년에 설립된 태평교회가 있다. 태평교회는 1913

20) 안성결, 안창호 선생의 조카: 7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60423000001502>(검색일: 2024. 08. 29)

21) 홍만춘, 『평서노회사』 p. 515 699, 670

년 기존 예배당에 수십칸을 증축하여 대형 예배당을 건축했으며 차리교회, 반천리교회, 잠진교회 등을 분립 개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3년 교회가 폐쇄되었으나 1945년 해방 직후 성도들이 교회를 재건하여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48년에는 이두수 전도사가 목사임직을 받고, 교육부서를 위한 전임전도사를 청빙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박해가 심해지며 교세가 기울게 되었고, 1950년 12월 1.4후퇴가 시작되며 대다수의 중직자들이 월남을 택한다. 이두수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월남 후 서울의 을지로교회와 합병하였고 이후 이두수 목사와 태평교회 출신 성도들은 동대문에 태평교회를 재건한다.

남포의 비석리교회는 득신학교 교사 출신으로 북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이 된 강량욱과 관계가 깊은 교회이다. 1938년 산동 선교사 출신의 박상순 목사가 부임하여 일제 말기의 어려움을 견뎠다. 그러나 박상순 목사는 해방 후 득신학교 교원출신인 강량욱과 가깝게 지내며 기독교도연맹 설립을 주도하여 기독교도연맹 제3대 회장이 된 인물이다. 비석리교회에는 1950년 허덕화 목사가 부임하여 교회는 매 주일 예배에 500-600명이 모이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허덕화 목사의 위임식이 있었다. 담임목사의 위임식 당일에 6.25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1.4후퇴로 인하여 허덕화 목사는 중직자 다수를 이끌고 전남 목포로 피난을 간다. 그는 함께 피난 온 비석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포에 성산교회를 설립한다. 허덕화 목사와 함께 목포에 피난을 와 성산교회의 개척에 동참한 주요 인물로 하대희 장로가 있는데 그는 하용조(온누리교회), 하용인(하스데반, 경배와 찬양) 목사의 부친이다.²²⁾

1943년 해산되었던 진남포성결교회는 해방 후 다시 문을 열어 박용현 목사가 진남포성결교회를 담임하게 된다. 박용현 목사는 1949년 비석리장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당시 예배에는 1,50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한다. 박목사는 “공산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공산당은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한다!”고 설교하고 그길로 월남하였고 그 뒤를 이어 진남포 성결교회에는 정동국 목사가 부임한다.²³⁾

2) 득신고등성경학교의 수난

1945년 해방 후 평서노회는 득신학교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헌의하고 1946년 봄 노회에서 노회장 조순천 목사를 득신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38선이 북이 공산화되며 기독교계와 공산당 정부와의 갈등이 증폭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량욱을 중심으로 조선기독교연맹이 창설되었다. 강량욱은 득신학교 교원출신으로 과

22) 홍만춘, 『평서노회사』 p. 670

23) 유관지, 『북녘교회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p. 31

거 조순천 목사와 함께 찬양사역을 한 인연이 있으므로 남포의 기독교계는 득신학교의 재건을 낙관했다. 그러나 강량욱의 기독교연맹의 목적은 공산정권 하에서 기독교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기독교 세력을 공산정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자연스레 평서노회의 목사들과 강량욱 목사 세력이 대립하게 되었으며 남포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 중 박상순 목사, 홍기주 목사, 안신호 권사(도산 안창호의 동생) 등이 강량욱의 기독교연맹에 가담하며 평서노회의 득신학교 재개교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산당의 방해로 득신학교는 교사(校舍)를 되찾지 못해 비석리교회 1층에서 재개교하게 되었다. 1947년과 1948년 득신학교에 지원한 학생수는 1,000여 명에 이른다. 당시 평양의 성화신학교와 남포의 득신학교에는 기독교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는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북한의 학교상황에 기인한다. 성화신학교에 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공산정권 수립기 기독교학생들이 주일 등교 거부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한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화신학교에서 고등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49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전문대학이 개교하였으나 출신성분의 문제로 기독교 인재들의 대학진학이 어려워졌고, 그들 중 대다수가 고등교육기관인 득신학교에 지원한 것이다. 평양의 성화신학교와 남포의 득신학교는 이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을 받아주어 잠시나마 북한 기독교청년들의 해방구 역할을 감당했다. 당시 평양신학교는 30-40대 현직 전도사들이 안수를 받기 위해 다니는 분위기여서 청년들은 평양신학교가 아닌 성화신학교와 득신학교를 택했다. 1948년 3월 당시 득신고등성경학교의 재학생은 460명에 달하게 되었다.

득신학교 조순천 교장은 기독교연맹 강량욱과 대립한 인물이다. 조순천 목사는 1946년 평서노회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인도했는데, 노회에 앞서 기독교연맹을 대표해서 언권을 요청한 강량욱의 요청을 “성직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로 묵살하고 노회를 시작하였다. 강량욱은 평서노회 회원이 아니었고 특별 언권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노회에서 발언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조순천 목사는 강량욱 등의 불만을 샀다.²⁴⁾ 1949년 12월 19일 평양성화신학교 주최로 남산현교회에서 개최된 찬양예배에 참석한 조순천 목사는 예배 후 성화신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배덕영 교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었다. 당시 조순천 목사가 방문한 성화신학교 교장실에는 평남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인사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득신학교 교장 조순천 목사와 성화신학교 교장 배덕영 목사가 같은 날 저녁 실종된 것이다. 조순천 교장이 실종된 이후 강량욱, 박상순, 안신호 등 기독교연맹 인사

24) 고택구,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계승할 뿐,” 『평서노회사』 626, 627. (고택구 목사는 당시 평서노회 회원으로 조순천 목사와 함께 강량욱의 발언을 반대하였다고 기록한다)

들이 학교를 접수하여 1950년 2월 기독교연맹이 파송한 교장과 교감이 부임하였고 이후 득신학교는 공산당에 우호적인 인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²⁵⁾ 득신학교 교장 출신으로 조순천 목사, 박경구 목사(박창환 전 장신대 학장의 부친)는 6.25 때 북한정권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8년 진남포 득신고등성경학교 입학식 사진, 1945년 해방 후 평서노회는 득신학교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현의하고 1946년 봄노회에서 노회장 조순천 목사를 득신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 (사진출처: 기독교신문)

3) 1949년 진남포 박해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고 분단이 현실화되며 북한지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이 1948년 12월 철수한 이후 1949년 3월경부터 진남포 시내에는 ‘남한의 국방군이 북한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김일성에 대한 비방 벽보가 붙여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남포 중앙감리교회 최승걸 장로에게 자신을 남한에서 온 정보원이라 소개한 인물이 접촉을 시도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국군이 진격해 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다. 최승걸 장로는 포목상 승윤홍을 그에게 소개하여 공산당에게 박해받던 기독교청년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남포의 반공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공산당의 공작이었다. 이때 신석구 목사, 비석리교회의 송영길 목사, 역량기교회 김덕모 목사 등 48인이 공산당에 의해 체포된다. 기독교인사들의 대대적 구속이 이루어진 날짜가 4월 19일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진남포 4.19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으나 관련된 몇몇 인물들이 생존하여 월남하였는데 그들 중 득신학교 교원이었던 홍만춘 목사(영암교회 원로)와 고등학생이었던 조동식 회장(인켈전자) 등이 있다.

4) 남포의 순교자들

김길수牧사는 1905년 평남 용강군 양곡면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7년 기독교인이 되어 비석리교회와 평양 남문밖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시무하고 1942년 3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양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신암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해방을 맞고

25) 홍만춘, 『평서노회사』 pp. 496-508. 2014년 7월, 2014년 11월 홍만춘목사(1947년 당시 득신학교 교원)와의 인터뷰 정리.



김예진 목사의 가족사진, 1897년 강서군에서 출생한 김예진 목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로 모진 고난을 겪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6.25 전쟁 중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다.

1946년 기독교계의 3.1절 기념예배를 주도하였고 11월 3일 주일선거 반대운동에도 동참했다. 조선기독교도연맹 가입을 거부하여 1948년 4월 10일 검거되어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모 목사는 황해도 송화군 출신으로 진남포 역량기 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1950년 4월 19일 소위 진남포 4.19사건으로 구속된 후 사망하였다. 서울의 후암교회를 개척한 김예진 목사도 남포의 강서구역 출신이다. 김예진 목사는 1897년 강서군에서 출생하였다. 송실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과 평남도청 폭파사건 등에 참여하여 2년 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 후 평원 갈원교회에 부임했으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고초를 겪었다. 해방 후 서울에 후암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전념하던 중 6.25을 맞았다. 그는 8월 2일 피난길에 경기도 광주에서 체포되었다. 김예진은 ‘딸을 미국놈에게 팔아먹고 일본으로 도망하려는 민족반역자’라고 쓴 종이를 붙인 채 끌려다니 끝에 8월 10일 공산군에게 총살당했다.²⁶⁾ 순교 후 김예진 목사는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며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응록 장로는 1882년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평남선 철도 건설 시 일제의 철도부지 매립에 항거하였으며 105인 사건에도 연루되었다. 이후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가담했고 해방 직후 고향인 강서군으로 돌아와서 강서군 고창교회에 출석했으며 평양과 남포의 여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가졌다. 6.25 발발 후 1950년 9월 25일 후퇴하던 공산당 요원에 납치되어 10월 20일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²⁷⁾ 김정선 장로는 1903년 7월 진남포부 역량기리에서 태어났다. 득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산학교에 편입하여 다니던 중 3.1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안주 대성학교와 남포 득신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였다. 교사를 사직한 후 시작한 문구업으로 성공했으며 1941년에는 역량기교회의 장로로 피택되었다. 해방 후 진남포 상업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그는 1946년 기독교계가 주도하는 3.1절 기념예배를 기획한 혐의로 교장의 지위에서 파면당한 후 월남하여 국립철도학교의 부교장이 된다. 1950년 7월 9일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납치된 후 행방불명되었다.²⁸⁾ 류정철 목사는 1903년 12월 황해도 안

26) “순교자열전 - 김예진 목사,” 국민일보 1999. 11. 12 (검색일: 2024. 08. 20)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91112000002503> 후암교회 홈페이지 <http://www.huam.org/main/sub.html?pageCode=53>

27) 고창교회사 편찬위원회 『고창교회 100년사』 p. 88

28) 홍만춘, 『평서노회사』 p. 836.

악군에서 출생했다. 1933년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후 황해도 은율, 평양 기림리교회 등에서 사역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진남포 비석리교회에 부임했다. 류정철 목사 역시 6.25 발발 후 행방불명되었다. 방창도 목사는 온천군 자복리(현재 남포시 온천군 서화리)의 자복교회에서 시무하던 중 6.25가 발발하여 몇몇 성도들과 함께 순교하였다.²⁹⁾

조만식 장로는 1883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에서도 활동한, 전 조선에 영향을 미친 민족 지도자였으나 그의 기반은 평양과 평남이었다.

조만식 장로는 해방 후 북한에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활동하였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평양에 남아 공산당에 저항하여 고려호텔에 연금된다. 1950년 공산당에 의해 살해당했다.

조순천 목사는 독립운동가 조정준의 장남으로 1907년 대동군에서 출생했다. 강서군 보명학교, 보신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으며 평양신학교 음악강사로 봉직했다. 1938년 평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포 역량기교회에서 시무하며 해방 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평서노회장을 연임하며 득신학교 교장을 맡는다. 그는 찬양에 은사가 있어 1930년대에 강량욱과 함께 찬양사역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해방 후 조선기독교연맹을 조직한 강량욱과는 극심한 대립을 겪는다. 1949년 12월 17일 평양에서 있었던 성탄축하 찬양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공산군에 의해 납치되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⁰⁾ 조승익 목사는 1886년 대동군에서 출생했다. 1928년 3월 평양신학교를 졸업 후 평서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산수리교회를 담임했다. 해방 후 용수리교회로 임지를 옮겼으며 득신고등성경학교 이사장에 취임하여 득신학교를 접수하고자 하는 강량욱에 대항했다. 조승익 목사도 1950년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그밖에도 진남포성결교회를 담임했던 오덕삼 목사와 진남포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중 1937년 하나님의 교회로 갈라져 나간 오계식 목사도 공산치하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³²⁾

해방 이후 남포에서 순교한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신석구 목사이다. 신석구 목사는 1875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경기도 장단으로



1945년 9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조만식. 1883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난 조만식 장로는 전 조선에 영향을 미친 민족 지도자였으나 그의 기반은 평양과 평남이었다.

29) 고창교회사 편찬위원회 『고창교회 100년사』 p. 89

30) 홍만춘, 『평서노회사』 p. 866.

31) 홍만춘, 『평서노회사』 p. 867.

32) 진남포성결교회-다섯번 문을 닫은 교회- 북녘교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s://ncrc.tistory.com/47> (검색일: 2024.09.01.)



신석구 목사는 1919년 서울 수표교교회를 담임하던 중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39년 5월 진남포 신유리교회에 부임한다. 이후 1950년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기까지 남포에서 목회를 이어갔다.

이주하여 살던 중 1907년 33세의 나이에 회심하여 고량포교회에 출석하고 이듬해 개성 남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후 그는 전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가평, 춘천 등에서 사역하였으며 1919년 서울 수표교교회를 담임하던 중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다시 원산, 춘천, 가평, 고성, 천안 등에서 사역하였고 1939년 5월 진남포 신유리교회에 부임한다. 이후로 그는 정춘수가 주도하여 만든 친일교단인 혁신교단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신사참배에도 반대하여 1944년에는 면직 처분을 받는다. 해방 이후 첫 3.1절에 공산당은 자신들이 주최하는 3.1절 기념식에 기독교계가 참석하도록 하였지만, 기독교계는 평양의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으로 기독교계의 자체적 기념식을 주관하기로 하여 공산당의 박해를 받게 된다. 그 중심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신석구 목사가 있었다. 그는 소위 진남포 4.19사건으로 불리는 공산정권의 반

공비밀결사 날조 사건으로 1949년 4월 19일 체포된다. 그는 75세의 고령으로 법정에서 서게 된다. 당시 신석구 목사의 법정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한다.

둘째,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으나 인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며 입을 봉하는 암흑정치가 무슨 민주주의인가?

셋째, 천하보다 소중한 인민의 생명을 초개같이 알고 숙청 학살하여 조상 때부터 피땀 흘려 모은 농토와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추방하며, 당신들의 제정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있다고 해놓고 어찌하여 종교를 박해하는가?

넷째, 소련을 조국이라 하니 배달민족이 어찌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는가?

다섯째, 모란봉을 모르토포봉이라고 하고 대동강을 레닌강이라 하며 평양의 중앙통을 스탈린거리라고 불리야 소련의 충복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여섯째, 너희들은 조선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인간이다.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리면 무죄한 백성을 소위 반동분자라는 죄명을 씌워 학살하기를 다반사로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 아는가?

일곱째, 김일성을 비롯한 그를 추종하는 공산당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민중을 최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아꼈

줄 모르는 공산당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³³⁾

이에 대하여 조선인민최고재판소는 “신석구의 죄는 사형이 마땅하나 일본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특별히 감동하여 10년형을 언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구속된 신석구 목사는 1950년 10월 10일 평양에 국군이 진입하자 공산당이 후퇴하던 상황에서 평양에 수감된 우익인사들과 함께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 6.25전쟁 이후

남포는 탈북의 주요루트가 되는 중국과의 거리가 멀고 해상으로도 개인이 남한에 이르기 어려운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탈북자가 많지 않으며 6.25 이후 기독교인과 교회에 관한 소식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2005년 4월 남포시의 기독교인 102명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진 사건이 있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 안전부 출신 탈북민에 의해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는데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2003년 남포시 주민인 한 50대 남성은 극동방송의 설교를 접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극동방송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무려 700페이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부터 시작된 모임이 확장되어 발각되었는데, 당시 발각된 인원이 102명이었다.”³⁴⁾ 국내의 한 선교단체는 이 사건의 정보를 북한지하교회 성도의 편지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전했다.³⁵⁾

남포에 거주하다 최근에 국내에 입국한 A 자매는 북한에서 접한 기독교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적 계층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끼리는 문제될 수 있는 말 잘 안합니다. 저희 집안도 토대가 좋은 편이라 누가 우리한테 반동적인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삼촌오빠한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기독교 믿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믿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삼촌이랑 상의를 했는데 신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랑 관계 끊고 멀리했죠”³⁶⁾

33) 북한연구소, 『북한 민주 통일운동사 - 평안남도편』 서울: (서울: 대진문화사, 1990) p. 430.

34) 미래한국. 2008. 7. 23 “남포 극동방송 지하교인 102명 처형, 정치범 수용소행”

35) “대북선교방송 효과 있다, 남포 일대 100명 이상 회심” 아이굿뉴스 2017. 07. 13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824> (검색일: 2024. 08. 29)

36) 2024년 8월 탈북민 출신 김OO자매 인터뷰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남포지역의 기독교 수용으로부터 각 교단의 성장과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교계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았다. 항구 상업도시로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던 남포의 성도들은 연보에 힘을 써 교역자들의 사례를 책임지며 조선에서 가장 먼저 자립에 성공한 교회로 이름이 남았다. 안창호의 가문은 강서군 탄포리에 점진 학교를 세워 기독교 인재를 양성했으며 강서의 부유한 양반집 마님이던 전삼덕은 예수를 믿고 전도부인으로 헌신하여 평안남도를 두루 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다. 평안도선교 초기 남포는 평양지부에 소속되어 평양선교의 연장선상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으나, 남포지역 교회의 성장은 평양으로부터 독립하여 장로교는 평서노회, 감리교의 경우 남포지방회를 구성하게 했다. 남포지방회는 분립 1년 만에 남포지방회와 강서지방회로 재분립되었다.

해방 후 강량욱, 안신호 등 강서지역(현재의 남포시 강서구역)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포의 교회를 친공산화하려 했지만, 감리교의 원로 신석구 목사와 장로교의 소장파 지도자 조순천 목사는 양 교단의 기둥이 되어 조선기독교도 연맹에 저항했다. 공산당이 38선 이북을 통치하게 되자 김일성을 등에 업고 북한정체에서 급부상하던 강량욱도 평서노회에서는 기를 펼 수 없었다. 그러나 공산당의 박해가 심해지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월남하였고 남포에 남은 지도자들은 북한정권이 날조한 남포 4.19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되어 대다수가 6.25시기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강서구역 출신으로 평안도와 전 조선을 대표하여 공산당에 저항한 조만식 선생도 이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다.

공산정권 수립 이후 남포에 남은 성도들의 소식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국내정착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포에서 적발된 기독교인의 소식과 남포에서 가까운 지인에게 전도를 시도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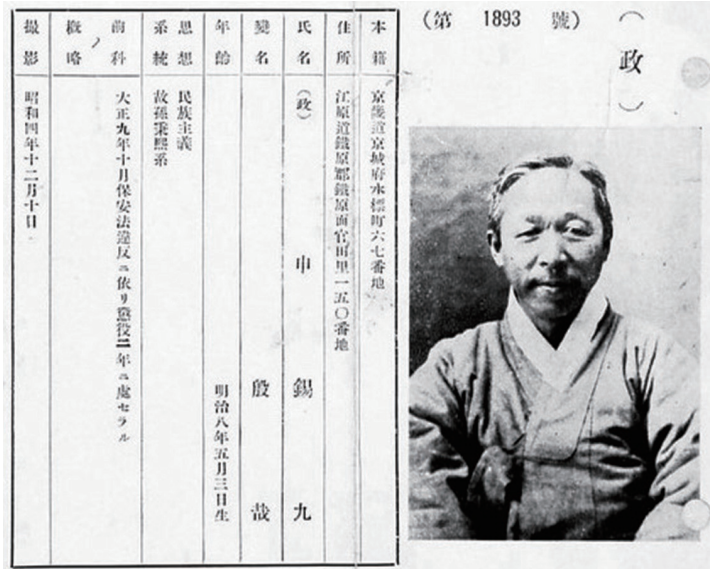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땅, 자신의 풍요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놓은 믿음의 선배들이 활동한 땅, 공산주의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하여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주의 종들이 묻힌 땅 남포를 기억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남포와 은재(殷哉) 신석구 목사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장)

「북한지역연구」 편집실로부터 남포와 민족운동을 주제로 기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남포는 민족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고 민족운동가들의 중요한 활동무대였다. 황해도 출신인 안중근 의사도 한 때는 이곳에서 육영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천 3·1만세운동은 남한의 제암리교회 사건보다 격렬했고 피해가 컸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잘 알려진 일인데 남포는 기독교가 왕성했던 지역이어서 남포의 민족운동은 많은 경우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편집실의 요청은 이런 이유들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이다.

남포와 민족운동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피다가 감리교 목사로서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고, 일제강점기의 뒷부분부터 6·25 전쟁 때까지 남포에서 일하다가 공산정권에 의해 목숨을 잃은 신석구(申錫九) 목사님을 조명하기로 하였다. 이유가 몇 있다.. 민족운동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의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이어 공산정권 통치 시기까지 활동하였기에 분단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감, 현실감, 이것이 첫 번째의 이유이다. 그 분의 행적이 너무나 큰 감동을 준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한 인물에 집중하면 더 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도 작용하였다.



1926년 신석구 목사의 정치범 카드 (사진 출처: 김형석의 역사산책 블로그)

신석구 목사님은 초기에는 은재(殷載), 후기에는 죽촌(竹邨), 두 개의 호를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은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신 목사님의 동상에도 이 호가 새겨져 있어 이 글에서도 은재라는 호칭을 쓰기로 한다.

남포, 생각나는 일들

필자에게는 남포라고 하면 생각나는 일이 두어 가지 있다.

1970년대 필자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국어교과서에 고려 중기의 문신 정지상(鄭知常)이 지은 이별의 노래 “송인”(送人)이 실려 있었다.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비 갠 긴 독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이 시 덕분에 진남포의 본래 이름이 남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 풀빛 짙은 긴 독, 눈물, 푸른 강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내용 때문에 남포라고 하면 정감 어린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예전 평안도 서쪽에 삼화현(三和縣)이 있었는데 남포는 삼화현의 남쪽에 있는 포구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었다. 그런데 남포는 청일전쟁 후 일제에 의해 ‘진남포’로 개명이 되었다. ‘청나라 군대를 진압하고 남포에 상륙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진압할 진(鎭)자를 덧붙인 것이다. 해방 후 북한은 서둘러 일본 색채들을 지워 나갔는데 그 작업의 하나로 진남포를 남포로 환원하였다. 「로동신문」은 1면에 이 사실을 박스 기사로 보도해서 돋보이게 했다.

1990년대부터 얼마 동안 남북간에 제한된 범위지만 교류가 행해질 때 남포는 남측 인사들의 발길이 많이 닿은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김일성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묘향산 국제친선관과 더불어 남포에 있는 서해갑문은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대북협력차 방북한 NGO들을 남포로 안내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필자도 남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갑문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상비석동’ ‘중비석동’ ‘하비석동’ 안내표지가 나오기에 ‘아 저기가 예전 비

석리이겠구나. 비석리에는 비석리감리교회(뒤에 진남포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꿨음)도 있었고 비석리장로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건물이 혹시 남아 있지는 않을까?’ 하며 열심히 두리번거리는데 ‘참사(안내책임자)’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기에 ‘이크!’ 하며 자세를 바로 했던 일이 있었다. 방북 때는 매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어서이다. 그 때의 에피소드 하나, 전망대에 올라 서해갑문을 보는데 ‘이왕이면’ 하고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아까의 그 참사가 필자를 보고 자꾸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니까 “그 자리는 로무현 대통령 각하께서 앉으셨던 자리란 말입니다”하는 것이었다.

남포는 2010년에 특별시로 승격되었고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강서구역, 대안구역, 천리마구역, 다섯 개 구역과, 온천군, 룡강군, 두 개의 군을 품고 있다. 남포특별시는 평양직할시의 관문도시이다. 남포와 평양의 관계는 인천과 서울의 그것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과 남포는 청년영웅도로라는 이름을 가진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은재, 어떤 분인가?

은재는 1875년 5월 3일(음) 충북 청주군 미원면 개동(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에서 출생하였다.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하는 중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얼마를 지내다가 친구가 있는 장단 고랑포에 왔는데 이곳에서 1907년, 34세 때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신앙인이 된 은재는 전도인으로 개성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191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18년 11월 4일 은재는 수표교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던 중에 3·1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도장이 다른 유품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2년 반의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은재는 원산을 비롯하여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의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1931년 6월에 이안지방(伊安地方) 감리사로 임명받았다. 이안지방은 강원도의 이천(伊川)과 안협(安峽)의 교회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지역은 넓고 교회들은 약한 곳이었

신석구의 일제 주요감시대상 카드. 뒷면의 기록을 보아 삼일운동 직후 체포되어 경성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氏 名	申 錫 九	年 齡	40 年 5 月 3 日 生	指 紋 番 號	77770
身 長	五 尺 一 寸 五 分	特 徵	右二指有胎記・文身各如左	No	88880
					

項 事 刑 受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及 其 事 由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官 渡 裁 判 所	刑 罰 名
滿 期	監 禁 年 月 日	監 獄	監 獄	罪 名
備 考	備 考	備 考	備 考	備 考

다. 은재는 쉬지 않고 맡은 지방을 순행하며 폐쇄 직전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지방을 부흥시켰다.

은재는 1935년 천안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이 무렵 일제는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은재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은재는 자신이 일본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식구들이 일본말을 쓰는 것을 금했다. 한복을 즐겨 입어서 오늘날 남아있는 은재의 사진들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대부분이다. 일본 경찰이 이런 은재를 곱게 볼 리가 없었다. 결국 은재는 1938년 천안경찰서에 2개월간 갇혀 있었는데 등에 악성 종기가 나서 엎드려 지내면서 유치장 생활을 하느라고 고초가 더 컸다.

은재, 남포로 가다

1939년 은재는 남포로 파송을 받았다. 이후 남포는 일제치하에서 7년, 공산치하에서 6년, 이렇게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보낸 곳이 되었다. 은재는 남포에서 일제로부터 집중적인 감시를 받으며 불려다니고 갇히곤 하였는데 해방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맞이했다. 공산정권치하에서도 유치장을 들락거리며 끝내는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감리교회에서는 연회(年會)에서 개교회에 교역자를 파송하는데 당시 감리교회에는 경기와 충청권을 관할하는 중부연회, 강원도와 함경도 일부를 관할하는 동부연회, 황해도와 평안도를 관할하는 서부연회, 3개의 연회가 있었다. 은재는 지금까지 중부연회, 동부연회에 속해 일하다가 이때부터 서부연회의 교역자로서 일하게 된 것이다. 연회 밑에는 지방이 있고 지방 안에는 구역이 있고 구역 안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교역자는 구역 단위로 파송되었다. 한 구역에는 대개 2, 3개 또는 4, 5개의 교회가 속해 있었다.

은재는 서부연회 진남포지방 신유리구역으로 파송을 받았다. 신유리구역에는 신유리교회(新柳里教會)와, 문애리교회(文艾里教會), 두 교회가 있었다 신유리교회는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로 구성학교(九成學校)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문애리교회는 초축리에 있어서 초축리교회(樵杵里教會)라고 불리다가 1936년에 문애리에 교회당을 신축하고 이전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은재가 진남포지방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진남포지방 감리사였던 이호빈(李鎬斌) 목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호빈 감리사는 2년 전에도 은재에게 진남포 지방으로 올 것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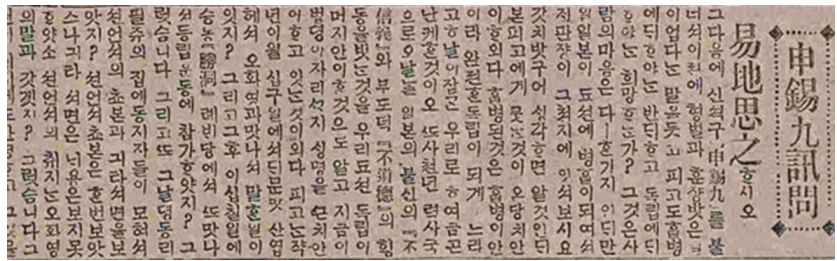
은재가 남포로 오고 2년이 된 1941년 3월 기독교조선감리회는 기독교조선감리교단이 되었고 명칭과 조직을 일본교단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걸음 더 나가서 1943년 가을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이름을 바꿔 일본기독교단에 예속된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감리교 혁신안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하여 이를 ‘혁

신교단' 이라고 불렸는데 실질적으로 기독교 조선감리회는 소멸된 상태가 되었다. 혁신교단은 1941년 목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춰서 당시 67세였던

은재는 은퇴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호빈 감리사가 대리목사라는 이름으로 은재를 신유리교회에 계속 파송하여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다. 1941년 12월 진주만을 공습할 때 일본경찰은 요시찰인물들을 예비 검속하였다. 은재도 검속 대상이 되어 그 추운 겨울에 용강경찰서에서 한 달을 보냈다.

1944년 은재는 유사리교회(柳沙里敎會)로 옮겼는데 전승기원 예배 및 일장기 게양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945년 5월 설교중에 연행되어 다시 용강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과 유치장 생활을 여러 번 겪었지만 유치장 생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은재는 이때의 생활에 대해 '열흘 동안 씻지 못하고 변소가 바로 옆에 있어 악취가 코를 찌르고 햇볕조차 들지 않아 정신이 아득하고 물 한 모금 먹기 어려웠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은재는 "몸은 감옥 안에 있어도 생각은 하늘에 있도다"라며 이 어려움을 이겼다.

1945년 8월 15일을 은재는 용강경찰서 유치장에서 맞이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석방되어 교회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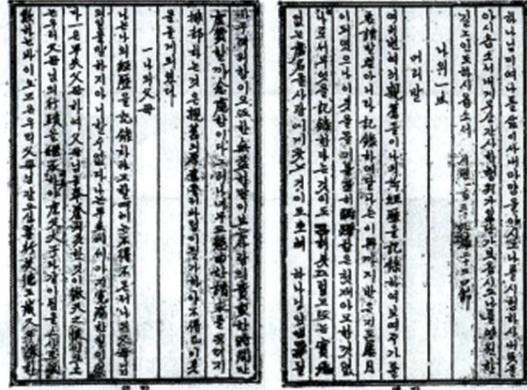
신석구 목사의 심문과 관련하여 매일신보 1920년 9월 25일자에 실린 기사 (사진 출처: 김형석의 역사산책 블로그)

공산정권 통치하의 여러 일들

북한을 통치하게 된 공산정권은 은재에게 1946년 3월 1일 평양중앙방송에서 3·1절을 기념하는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은재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으니까 책임자라고 판단해서였을 것이다. 방송은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2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공산정권은 원고를 작성해 은재에게 주면서 이대로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재는 원고를 제쳐 놓고 자기의 소신대로 강연을 했는데 방송은 10분 만에 중단되었고 은재는 정치보위부로 연행되었다. 그날 평양시내는 시끄럽고 뒤숭숭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3·1절을 앞두고 장대현교회에서 해방후 처음 맞이하는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산정권은 평양역전에서 기념집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지도자들을 예비검속했다. 평양역전 집회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렸는데 (이 집회의 모습은 「로동신문」에 자세하게, 그리고 요란하게 보도되었다.) 이 기념식에서 김일성을 겨냥한 수류탄 투척사건이 일어났고, 교회는 방해를 받으면서도 수천 명



신석구 목사의 친필 자서전
(사진 출처: 김형석의 역사산책 블로그)



이 장대현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이어 시가행진을 했다. 은재의 방송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공산정권이 교회를 적대시하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은재는 자연스럽게 정치보위부의 중요감시대상이 되었다. 은재는 그해

10월 광량만교회(廣梁灣敎會)로 파송을 받았다.

은재는 1947년 2월 당시 북한의 통치기구였던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기독교가 북조선에 있어서 건국에 비협력자이니 선거에 반대자이니 친미파이니 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로 시작되는 이 감상문에서 은재는 식량부족과 남북대립에 대해 선한 방침을 강구할 것을 요망하였다. 이 감상문의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은재는 1947년 3월 1일에는 진남포 도립극장에서 3·1절 기념 강연을 하고 다시 정치보위부에 연행되어 며칠을 보내고 풀려나왔다.

1947년 6월 감리교 서부연회가 평양 신양리교회에서 열렸는데 연회장 송정근 목사와 서기 이피득 목사가 기독교자유당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어서 개회를 할 수 없었다. 연회원들 가운데 대신 육에 갇힐 사람을 보내어 연회장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재가 내가 나이도 많고 감옥 경험도 있으니 가겠다고 자원하여 러시아어에 능한 현병찬 목사와 함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무상을 찾아갔다. 그렇게 해서 송정근 목사를 모시고 올 수 있었는데, 송 목사는 건강 때문에 회의를 주관할 수 없어서 은재가 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보위부원들이 연회장에 들이닥쳐 은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연행해 감으로 연회는 자동해산이 되고 말았다.

1948년 6월 은재는 문애리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당시 월남한 교역자들이 많아 은재는 주변의 교역자 없는 교회들도 함께 돌보아야 했다. 은재에게도 월남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를 준비한 사람도 있었으나 은재는 손을 내저었다.

1949년 4월 남포에서는 ‘진남포 4·19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다. 한 낮선 청년이 남포에 나타나 여러 사람을 만나 자기는 남에서 온 비밀요원인데 메이데이(5월 1일)에 국군이 진격해 올 터이니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말을 믿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비석리장로교회 지하실에서 국군환영 5도연합 진남포지부 결성 모임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4월 19일 새벽부터 공산정권의 일제 검거가 시작되었다. 이때 체포

된 인원이 48명인데 당시 75세였던 은재도 새벽 3시 문애리교회에서 체포되었다.

은재는 진남포 내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평양 정치보위부 수용소에 갇혔다. 그 수용소는 일제시대 고무공장 창고로 쓰던 건물이었다. 4.19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은재는 처음에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평안남도 재판소장 허정숙(許貞淑)은 3·1운동 때 민족대표들의 변호를 맡았던 허헌(許憲)의 만딸이었다. 은재는 최고재판소에서 10년형이 확정되었다. 최고재판소장은 한글학자인 김두봉(金斗奉)이었는데 그는 피고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나 삼일항일운동의 공로를 참작하여 10년형을 언도한다고 했다. 은재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함께 체포되어 6년 형을 언도받은 두 여학생이 있는데 그 둘의 징역 12년을 내게 더해 주고 그들을 석방해 달라고 하였다. 은재는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죄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수형번호는 ‘소150호’이었다.

6·25전쟁중 인천상륙작전으로 국군과 UN군이 빠른 속도로 북진하게 되자 다급해진 공산정권은 평양인민교화소에 가둬놓은 인사들을 집단 처형하였다. 은재도 이때 처형되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처형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정확한 증언은 전해지지 않는다. 전후 정세로 보아 1950년 10월 10일 이후 한두 주간 사이에 처형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희생된 인사들의 시신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은재는 오랫동안 무덤이 없었다. 1968년 9월 14일 오전 11시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선열묘역에서 의관장(衣冠葬)이 드러졌다. 의관장은 고인의 유품을 묻는 장례를 말하는데 은재의 장례가 대한민국 최초의 의관장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참석하여 조사를 한 이 장례식의 순서지 표지에는 “民族代表 三十三人의 一人 殷哉 申錫九先生國立墓地安葬式典帖”이라는 긴 제목이 인쇄되어 있다.

은재의 손자 신성균(申聖均) 장로(작고)는 월남후 대구에 정착해서 사법서사로 일하면서 조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그가 발간한 『殷哉 申錫九 牧師 追想資料集』(전5권)은 정말 귀한 정성의 결정체임을 볼 때마다 느낀다. 이 글을 쓰는데 그가 꾸준히 보내준 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은재의 증손 신현우는 감리교 목사가 되어 지금 경북 고령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통일이 되면

필자는 몇해 전에 민간인출입통제지역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 연천 고랑포에 있는 고랑포교회의 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랑포에서 개성으로 가던 길 오른쪽, 민통선 입구를 지키는 초소의 뒤편이었는데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인삼밭이 되어 있었다. 북녘에 있었던 교회들의 자취를 찾는



2019년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석구 일대기 칸타타 공연이 광림아트센터에서 있었다.

작업의 일환으로 애써 찾아낸 것인데 ‘아, 저기가 은재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처음 출석하시던 곳이로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다. 이 글을 쓰려니까 그 일이 생각나면서 통일이 되면 남포에 가서 은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새로워진다.

은재가 처음 부임한 남포구역의 두 교회 가운데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담임한 문애리교회가 있던 곳은 지금은 남포특별시 향구구역 문애동이 되어 있다. 그 다음 목회지였던 신유리교회가 있던 곳은 남포특별시 향구구역 가천리가 되어 있다. 유사리교회가 있던 곳은 남포특별시 향구구역 류사동이 되어 있다. 광량만교회는 용강군 금곡면 우등리에 있었는데 우등리는 남포특별시 온천군 우등1리 우등2리로 나누어져 있다. 광량만교회가 그 가운데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은 행정구역을 크게 개편하며 땅문서들을 폐기하고 지번을 없앴기 때문에 옛 교회 자리를 찾으려면 그곳에 오래 살고 있는 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 김일성의 외가가 출석하던 하리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를 지으려 할 때도 동리 노인들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칠골교회를 건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은재가 목회하던 교회들의 위치를 아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

은재의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예전 본관에는 이 학교 출신 민족대표들의 부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은재도 그 가운데 있다. 은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8회(1922년) 졸업생이다. 청주삼일공원에는 청주 출신 민족대표 5인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들고 있는 은재의 동상이 있다. 청주 출신 민족대표는 6명인데 그중 한 명은 변절을 해서 앞에서 말한 혁신교단을 이끄는 대표적인 친일인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의 동상도 세웠는데 시민단체들이 끌어내려 지금은 그의 동상이 있어야 할 좌대 위에 햇불이 자리잡고 있다. 그 변절 목사는 은재와 동향일 뿐 아니라 절친한 사이였어서 은재는 그에게 권면을 여러 번 하고 기도도 많이 한 기록이 남아있다. 모범적인 성직자였고 민족운동가였던 은재가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타올린 남포에도 은재를 기념하는 것이 하나쯤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게 된다. ☺

남포의 문화유산

남포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옆에 위치하여 수많은 고구려의 유적이 남아 있다. 남포시 강서군 삼묘리에는 고구려의 고분 3개가 함께 있어 ‘강서3묘’ 고분군으로 불렸다. 강서삼묘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크기가 비슷한 3기의 돌칸흙무덤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중 가장 큰 대묘와 그다음 크기인 중묘에 화려한 벽화가 있다. 그중 유명한 벽화로 사신도(백호, 주작, 현무, 청룡)의 그림이 있는데 큰 무덤의 청룡과 중 무덤의 백호는 고구려 미술의 걸작으로 꼽힌다. 강서삼묘(강서세무덤)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남포시 강서지구 강서세무덤 전경(사진출처: 통일뉴스)

덕흥리벽화고분은 남포시 강서군 덕흥리에 있는 고분으로 북한의 국보 제 156호이다. 고구려의 진(鎭)이라는 대신의 무덤으로 5세기 초에 만들어졌다. 천장에는 인물 풍속도와 상상화가 그려져 있으며 600여 자의 설명이 있는데 벽화의 내용은 주인공이 벼슬을 지낼 때의 모습과 생활, 무사와 귀족의 생활, 고구려인들의 신앙심과 설화까지 그 주제가 다양하다. 덕흥리벽화의 무덤은 무덤의 주인공과 축조 연대가 기록되어 무덤주인의 이름과 지위, 사망연대와 나이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고구려의 무덤이다. 덕흥리벽화고분도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덕흥리벽화고분의 한 부분(사진출처: 중도일보)



수산리 벽화고분의 한 부분

방무덤이다. 네 벽은 납작한 화강암 판석으로 2m 높이까지는 직선이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내경되었으며 천장가구는 3단의 평행 꺾임 위에 2단의 모줄임을 하고 가운데에 덮개돌을 덮었다. 널방의 남벽의 서쪽과 동쪽에는 주인공이 검은 모자를 쓰고 누런 겹옷을 입고 시종이 든 꽃양산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다.

수산리 벽화고분은 수산리에서 서남방향으로 약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고정산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줄기가 끝나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고분의 외형은 방대형이며, 묘실의 구조는 네모난 널방과 널방 남벽 중앙에 달린 널길로 된 외



(사진출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공식 블로그)

옛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방어하는 서쪽 방어망의 주요한 거점으로 축성되어서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숙종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성의 대흥산성과 함께 황룡산성을 다시 쌓았을 만큼 지속적으로 중요시되었던 대표적인 산성이다. 

황룡산성은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37호이다. 남포와 용강 일대에서 가장 높고 험한 산인 오석산(566m)을 주 봉우리로 하여 골짜기를 감싸고 8개의 봉우리와 능선을 연결하여 쌓은 포곡식 산성으로 총 길이가 6620m이다. 이곳에서는 황해와 온천평야 및 증산평야가 서북쪽으로 한눈에 보이고, 동쪽으로는 산지가 이어져서 황해에서 평양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를 제어하는 위치에 있다.

참고문헌

고재열, 『미리 써본 북한여행 계획서』 (서울: 열린책들, 2021)

한국고고학사전(2001)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공식 블로그

<https://e2uni.tistory.com/1911>

남포 출신의 인물

도산 안창호는 1878년 평안남도 강서(현재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에서 출생했다. 1895년 상경, 구세학당(救世學堂)에 들어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1897년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하고 평양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쾌재정(快哉亭)에서 개최하였다.

1899년 고향 강서에 한국 최초로 남녀공학의 점진학교(漸進學校)를 세우는 한편 황무지 개척사업을 벌였고,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을 더욱 받아들이 필요 있음을 절감하고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노동을 하면서 초등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해 한인공동협회(韓人共同協會, 독립협회)를 만들어 《공립신보(共立新報)》를 발간하였다. 이 무렵 자신의 호를 도산(島山)이라 지었다.

안창호는 1906년 귀국, 1907년 이갑(李甲)·양기탁(梁起鐸)·신채호(申采浩)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를 조직,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를 기관지로 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안창호는 대구에 태극서관(太極書館)을 세워 출판사업을 벌이고 평양에 도자기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산업육성에 힘쓰는 한편 평양에 대성학교(大成學校)를 설립하고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조직하여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에는 신민회 간부들과 함께 개성헌병대에서 3개월간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암살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 후 시베리아를 거쳐 1911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청년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흥사단(興士團)을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가하여 내무총장·국무총리대리·노동총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창간하였다. 1921년 임시정부가 내부분열을 일으키자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1926년 다시 상하이로 가서 흩어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상촌(理想村) 건설에 뜻을 두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도산 안창호

일제가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실패하고, 1932년 윤봉길(尹奉吉)의 홍커우공원 [虹口公園] 폭탄사건(홍커우공원의거)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출옥하여 휴양 중 동우회(同友會)사건으로 재투옥되고, 1938년 3월 10일 병으로 보석되어 휴양 중 사망하였다.



1945년 9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조만식. 1883년 강서군 반석면에서 태어난 조만식 장로는 전 조선에 영향을 미친 민족 지도자였으나 그의 기반은 평양과 평남이었다.

조만식(曹晩植, 1883. 2. 1~1950.10.18)은 1883년 2월 1일 평남 강서군 반석면 반일리에서 출생했다. 15세 때부터 평양에서 포목상과 지물상을 경영하며 가게를 꾸려 온 선생은 5척 단구의 이름난 술꾼이었다. 그러다가 서당에서 알게 된 한정교(韓鼎敎)의 인도를 받아 기독교 장로교에 입교했다.

이후 선생은 신학문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서 23세의 만학으로 평양 숭실학교(崇實學校)에 입학했다. 1906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먼저 세이소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했고

1910년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학부(明治大學 専門部 法學部)에 입학했다.

1913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조만식은 남강 이승훈(南崗 李昇薰) 선생의 초청으로 민족교육의 요람인 오산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이후로 교장으로 봉직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江西郡 沙川) 장날의 독립만세운동 시위를 주동하였으며, 그 후 특별한 사명을 띠고 상하이(上海)로 망명하려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르게 되어 교육계를 떠나게 되었다.

1923년에는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주축으로 벌어진 조선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2년에는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취임, 언론 창달에 힘쓰고 민족계몽에 앞장섰으며 그 후 1937년에 수양동우회 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1921년부터 11년간에 걸쳐 평양 YMCA 총무로서 기독교정신과 민족부흥의 정신을 일체화함으로써 항일의 선봉에 서서 일제 말기에 소위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 강요에 결연히 반대했다.

해방 후 1945년 8월 17일 평양에서 조선건국준비평남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45년 11월 3일 선생은 평양에서 조선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1946년 1월 2일 소련군정에 신탁통치 불찬성의 뜻을 통고하고 한편으로는 반탁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소위 인민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했다. 1946년 1월 6일 마침내 소련군정 및 김일성 일파와의 최후 담판은 결렬되고 선생이 인민위원회 건물 현관을 나서자 이미 소련군에 의해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실려 고려호텔로 연행되어 갔다. 이후 조만식은 6·25전쟁 때 북한군이 평양에서 철수하는 도중에 그를 총살했다고 전해진다.

김창준 목사는 1890년 5월 3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가풍리의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다. 18세 때 미국인 선교사 문약한(文約翰, Moore, J.W.)의 세례를 받았다.

미국북감리회 전도사로서 기독교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독립선언식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가장 어린 인물이었다.

이후 1921년, 한용운 등과 함께 가출옥(가석방)되었다. 그 후 서울 감리회 중앙예배당을 중심으로 설교운동을 하고 1924년 ~ 1926년은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광복 후에는 좌익으로 방향을 틀어 좌익활동을 시작했다. 남한에서 기독교민주연합을 창당하여 활동하다가 어려움에 부딪치자 남북연석회의가 열린 1948년에 월북하여 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1953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미영제국주의 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온갖 헌신성과 창발적 활동으로써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국가정권기관 및 당 지도일꾼'으로 선정되어 로력훈장을 받았다.

1957년 9월, 2기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말년까지 재일교포 복송 사업에 관여하다가 1959년 5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국가장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부고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투쟁하여 왔다.” 라고 추모했다.



미국 유학시절의 김창준 목사

하용조 목사의 가정은 남포의 비석리교회 출신이다. 비석리교회는 해방 후 공산당의 박해에도 매 주일 예배에 500~600명이 모이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1.4후퇴가 시작되자 허덕화 목사는 중직자 다수를 이끌고 전남 목포로 피난을 가 성산교회를 설립한다. 허덕화 목사와 함께 목포에 피난을 와 성산교회의 개척에 동참한 주요 인물로 하대희 집사(이후 장로)가 있다. 하용조목사는 하대희 집사의 장남으로 1946년 남포에서 출생하여 1.4후퇴에 가족과 함께 목포로 내려와 신앙생활을 하였다. 1976년 목포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1985년 용산구 서빙고동에 온누리교회를 설립했다. 하용조 목사와 온누리교회는 기독교 출판사인 두란노서원, 기독교 방송국 CGNTV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문화사역과 선교사역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2011년 8월 뇌출혈로 쓰러져 소천했다. ☹️



하용조 목사

남포의 음식

일제강점기에 들어 남포에서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업이 공장화, 기계화되며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쌀이 남포로 몰리기 시작한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수입한 밀로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도 함께 발달하였다.

남포는 소금이 풍부한 도시이다. 일제강점기 현재의 위치로 서해갑문 바깥쪽에 위치한 광량만에는 대규모의 천일염전이 개발되었다. 광량만 일대는 연평균 강수량이 700mm 안팎으로 비가 적어 서해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속한다.

남포는 약수로도 유명하다. 강서약수는 천연기념물 제56호로 지정할 정도로 북한이 내세우는 대표

약수이다.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가 수원지이다. 원래 강서약수터는 요양기지와 약수생산기지로 개발되었는데, 강서의 구약수터와 청산약수터의 두 곳에서 약수를 길어 올린다. 두 약수터의 수십 개 수원지 중 네 곳이 활용되고 있다. 강서약수는 산성 계열로 철분과 탄산이온 함량이 높아 위장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출처: 뉴스클레임



사진 출처: 한국일보

어복쟁반은 남포와 평안남도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다. 어복장국 또는 소고기 쟁반이라고도 불린다. 어복쟁반은 직경 50cm가량 되는 쟁반에 메밀국수와 소고기, 녹두부침, 채소 등을 얹어 육수를 부어 끓여 낸 음식이다. 남한에는 남포출신 여사장이 1960년대에 서울 을지로에 문을 연 남포면옥에서 맛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 열린책들, 2023)

김영신, 을지로입구 "남포면옥" -옛 향수 속 양보의 미덕 더하는 평안도 "어복쟁반" 통일한국, 263호 (2005)

남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매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기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2000년대 중반에 남포로 이사를 왔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남포에 있는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있었죠.

북한에서는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이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나 봐요.

남편이 남포에 배치를 받게 돼서 이사를 갔죠.

남포지역을 보면 남포 시내와 있고, 대안, 천

리마, 강서, 온천 이렇게 지역이 나뉘져 있죠? 지역 간 이동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남포에서 평양까지가 1시간 20분 - 1시간 30분 걸려요. 남포에서 평양 가는 길에 대안, 천리마를 지나거든요. 남포에서 대안까지는 40분 즈음 걸리고 천리마까지는 한 시간 즈음 걸리죠. 강서까지는 40-50분 즈음 걸리는 거 같아요.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시나요?

버스를 주로 타고 기차도 이용하기는 하는데, 자꾸 정전이 되니까 기차는 많이 안타죠. 철도도 정전이 안되면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정전이 자주 되는



남포 시내 지도, 북한에서 발간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데 또 정전 안되는 기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도 관련된 일 하는 사람은 정전이 되지 않는 기차를 아니까 그 기차 타고 다니기도 해요.

신흥리 같은 데는 항구구역 장마당이 도매시장이예요. 신흥리 사시는 분들은 자전거 많이 타죠.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타요. 아마 다른 어떤 도시보다 남포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거 같아요.

자전거를 많이 탄다는 거 보니까 남포에는 산이나 언덕이 적나 봐요?

네 산지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항구구역이랑 와우도구역이 시내인데, 구역이 크니까 걸어 다니기 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버스도 별로 없고요.



코로나기간에 이동 중인 천리마제강기업소의 직원들. (사진 출처: 뉴스1)

강서, 천리마는 남포 시내보다 평양에 더 가깝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남포보다는 평양에 더 자주 가죠. 그리고 천리마는 남포에서뿐 아니라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도시예요. 그래서 일꾼들도 천리마 사람들은 보호를 받죠. 천리마에는 평양 권력층이랑 연결돼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평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통행증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리마 분들은 평양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법적으로는 똑같이

여행증명서 떼야 하죠. 그런데 천리마에는 평양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만약에 늘 평양에 다니는 사람이 오늘도 평양에 가야 하는데 승인번호를 못받았다, 그러면 검문하는 사람들이랑 잘 아니까 인맥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죠. 천리마 사람들처럼 늘 평양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비법적으로 다니지, 다른 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평양 들어가자면 절대 안 통하죠.

천리마구역이 남포 시내보다 더 변화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남포 시내가 더 크죠. 시장의 물건들도 천리마랑 남포랑 달라요. 천리마 같은 경우에는 옷감 도매가 발달했죠. 평성이나 다른 도시들에서도 천리마에 와서 옷감을 떼가죠. 강서는 옷을 많이 만들어요. 짝통을 다 강서에서 만들어서 나가요. 중국사람들도 짝통장사하는 사람들이 강서에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예요.

강서에 옷공장이 있나 보네요?

짝통은 다 개인이 만들죠. 남한에도 동대문에 어떤 동네 가보면 주택가에 개인집들에 미싱 갖추고 공장처럼 일하는 집들 많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런데 남포 시내에도 그렇게 옷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남포 시내의 한 피복공장에서 노동자를 지도하는 관리자. (사진 출처: 뉴스1)

데, 강서는 짝퉁을 대규모로 만드는 느낌이면 남포는 정말 좋은 품질 옷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포 시내를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들 도매 많이 하죠. 삼푸, 비누, 생필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의류 제조업이 많이 발전했네요.

전에 개성공단 있을 때 개성공단에서 직원들이 빼돌린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 물건들이 남포에도 많이 흘러왔어요. 천리마에서 직물이 나오잖아요. 그 천을 강서, 남포사람들이 받아다가 개성공단에서 나온 옷과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온천군은 좀 어떤가요?

온천은 농사 많이 짓고, 그냥 보통 북한 바닷가 도시죠. 용강도 남포 직할시에 속하긴 했지만 특별할 건 없어요. 온천, 용강은 보통 북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남포, 강선, 천리마처럼 다이나믹한 도시는 아니에요.

특별시로 승격됐을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좋아했죠. 특별시는 도량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남포가 평양과 붙어 있기도 하고, 특별시이기도 한데, 무슨 특혜는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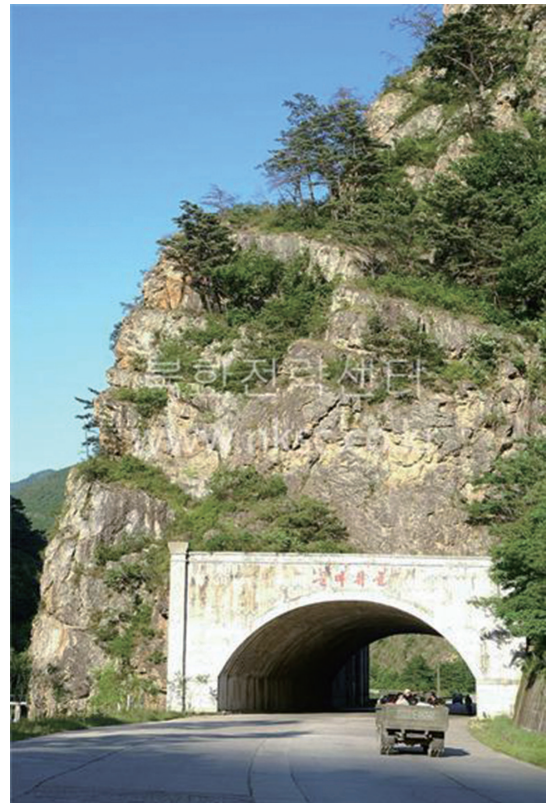
그런 건 없죠. 그런데 확실히 물가는 엄청 싸요. 양강도에 가보면 물건들이 모자라니까 물가가 엄청 비싸죠. 남포랑 해산이랑 비교하면 두 배 차이 나는 품목들도 많아요. 남포는 물자가 풍요로우워서 그런지 사람들도 좀 마음이 너그럽죠. 평양의 위성도시 중에 평성도 물자 풍요로운데 평성 사람들은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돈에 집착하는 분위기가 있죠. 남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 보기에 남포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요?

남포 사람들이 경우가 있다고 하죠. 오히려 평양보다 살기가 훨씬 편해요. 평양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하고 남포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남포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 가난하다고 무시해요. 평양에는 권력있는 사람들이나 잘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포보다 훨씬 많아요.

남포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도 있고 1호 도로도 있더라고요. 두 도로가 쓰임이 다른가요?

남포에서 평양까지 가는 길이 영웅 고속도로, 1호 도로, 국도 세 개가 있어요. 고속도로나 1호도로는



평양-남포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사진 참조: 북한전략센터)

길이 망가질까 봐 화물차를 못 올라가게 해요. 고속도로는 아스팔트니까 튼튼하죠. 1호도로는 흙길이에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아니라 빨간 흙길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서 아스팔트 도로 못 지않게 좋죠. 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만 다닐 수 있고, 1호도로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다녀요. 통제하고 보수하는 기간도 자주 있고요. 무거운 화물차는 국도로만 다닐 수 있어요.

남포에 지역별로 부유한 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나요?

시내에 그런 동네가 있죠. 그리고 천리마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집값은 남흥동이 비싸고요.

남포 주민들의 직업적 특성이 있나요?

외화벌이 단위들이 많죠.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구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항구에 무슨 물건이 들어온다, 하면 그 물건 받아서 파는 거죠.



남포항으로 들어온 대한민국의 지원물자를 수송하는 북한 노동자(사진 출처: rfa)

해외에서 들어온 배에서 물건 받아서 파는 게 불법 아닌가요?

아니예요, 요즈음은 합법적으로 해요. 배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장사가 있고, 남포에 살면서 물건 받아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정부에서 그런 일을 조직해서 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니까. 개인이 허가받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부들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가 다르잖아요. 봄이면 집 팔고 정리해서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살고 겨울 되면 다시 들어와서 집 사서 살죠. 봄 되면 살던 집 팔고 나가서 바다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포가 특이한 게 북한도 지역마다 월세는 많은데 전세는 없거든요. 그런데 남포에는 전셋집들이 있어요.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전세 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집마다 가격이 다른데 한국처럼 전세가 비싸지는 않고 500달러 있으면 적당한 전셋집 구할 수 있어요.

남포에도 1중학교가 있죠? 교육열이 심한가요?

네. 제가 북한에서 세 개 도시에서 살았는데 남포가 교육열이 독보적으로 강했어요. 지금은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교육열이 강해졌죠. 남포는 지금도 1, 2년 선행학습해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도 과외를 시켰고 돈 좀 있는 집은 예능 한 과목, 체육 한 과목씩 시키죠. 탁구열풍이 불어서 탁구장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엄마가 탁구장 맡아 놓고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밥먹고 나와서 한 시간 탁구 치게 하고 들어가서 오후수업 하게 하죠! 요즈음 남한에 들어온 초등학생 중에서 북한에서 사교육 받고 온 애들은, 개중에 남한 애들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남포 사람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위해 찾는 장소가 있나요?

주변에 구월산이 멀지 않아요. 해마다 구월산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해갑문 지나서 해수욕장도 있어요. 최근에는 관광도 엄청 많이 다녀요,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같은 데도 다니죠. 지금은 개인이 관광하는 게 아니라 단체 패키지관광을 다니죠. 개인이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여행회사는 10명, 20명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니깐 큰 부담 없이 다니죠. 남포 사람 중에 소득 상위 30% 되는 사람들은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같은 데 다녀왔을 걸요! 남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양강도 해산 사람들도 여름에 패키지로 해수욕장 다녀와요. 패키지가 편한 게, 호텔도 알아서 정해주고 통행증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가격도 싸고요. 다 패키지로 다니죠.



남포시 와우도구역에 위치한 와우도 유원지

와우도에 유원지를 잘 꾸몄다고 하던데, 정말 잘 꾸며 봤나요?

와우도에 유원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열지 않았어요.

남포에는 재일교포나 화교가 있나요?

아니요. 남포에는 화교도 거의 없고 재일교포도 없어요. 남포가 북한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요. 바다도 가깝고 외국배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김일성, 김정일이 남포를 오며 가며 들르기는 했지만, 제대로 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안전문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포에 간첩도 많다는 말이 있고요.

남포항을 통해서 외부에서 물자가 들어오면 남포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겠어요?

주민들이 무슨 물건이 들어오는 걸 미리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물건이 퍼지니까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 배가 많이 들어오나요?

동남아 배들이 많이 들어오죠.

UN대북제재가 있는데 외국 배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외국 배가 들어오지는 않고 북한 배들이 동남아에 갔다가 물건 싣고 돌아와요.

남포의 특산물이 있나요?

천리마 제강소에서 철이 나오고 바다에서 소금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병배라고 있어요. 남한에서 자주 보는 배가 아니라 길쭉한 배예요. 11월에 배가 나오는데 잘 보관하면 다음 해 3, 4월까지 먹어요. 아주 달아요. 남포에서 과일도 많이 나와요. 사과철에 사과 나오고, 배철에 배 나오고, 여름에는 토마토도 많이 나오고 늦여름에는 복숭아 나오고요. 땅집에 사는 집들은 감, 앵두나무도 많이 심죠.

남포 주민들의 식생활은 어떻게?

바다가 가까우니까 수산물을 많이 먹죠. 서해는 갯벌도 있고 동해에 비해 어족이 다양하고 풍성해요. 술먹는 사람들 조개를 술안주로 많이 먹죠. 그리고

남포는 전통음식보다 일식, 양식이 발달했어요. 샐러드 돈가스 많이 먹어요. 양강도, 함경도에 중국음식이 발달한 것처럼 남포는 일식, 양식이 발달했죠.

북한사회에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남포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혜산이나 심한 곳보다는 훨씬 덜하죠. 남포 사람들이 아편이나 센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빵두(얼음)는 보편화돼 있죠. 한 50%는 해봤을 걸요? 중독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바지 벗고 소변보고 그러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밥도 엄청 많이 먹고 애들 먹는 간식도 좋아하고요. 마약하면서 험잡꾼 된 사람들도 많아요.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 캡처)

남포에 계실 때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좋게 선전하죠. 강연회에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진, 성경책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종교 믿다 걸리면 인생 망친다고 교육을 하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저렇게 처벌 받으면서 성경 본다니까 성경에 무슨 점쟁이들이 보는 책같이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김정일 죽었을 때 동상에 가서 참배해야 하는데,

남포에서 불참한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저항정신이 강해도 그렇게 참배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참배를 일부러 안 한 사람들이 있다길래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기독교 믿어서 참배 안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앙 때문에 생긴 저항정신은 보통 저항정신보다 강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출신성분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 집안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접근 안 했을 거예요. 저희 사촌오빠는 친구가 자기한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바로 얘기를 했는데, 일을 크게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서 신고는 안 했죠. 그냥 관계 끊고 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보다 생각했어요.

대두동 쪽에 무역은행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교회자리라고 다 알고 있어요. 건물도 당시 건물 그대로 있어요. 내부는 인테리어를 다시 했지만, 겉에는 그대로 쓰죠.

용정동쪽에 항구구역 보안서가 있고 그 앞에 항구은행이 있어요. 거기도 교회자리죠. 붉은벽돌 그대로고요, 창문도 둥근 모양 그대로 교회 모양으로 있죠. 문은 다 바꿨고요.

사람들도 무역은행 건물이나 항구은행 건물이 예전에 교회로 쓰였다는 걸 아나요?

다 알죠! 저는 남포에 십몇 년 살았는데도 교회자리였다는 말 들어봤는데, 남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교회건물처럼 생긴 건물이 몇 개 더 있거든요. 어쩌면 그 건물들도 예전에 교회건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최근 1년간 언론에 보도된 남포 소식

남포항에서 관찰되는 제3국 선박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도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 선적의 용신(Yongxin)호는 한반도 시각 2024년 6월 4일 오후 3시경 남포항이 자리한 대동강변에서 위치 신호가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는 바다가 없는 육지 국가이다. 따라서 이 선박이 부르키나파소의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선주가 등록국가와 운영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해역에 제3국 선박이 최근 자주 출현하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VOA는 지난 4월 팔라우 선적의 ‘씨씨 나인(C Sea Nine)’호가 북한 근해와 남포 계선 장소 등에서 선박의 위치 정보를 발신했다고 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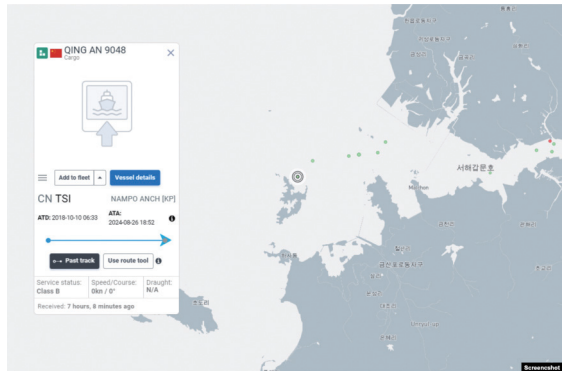
또 5월 중순엔 중국 화물선과 어선, 바지선 등 5척이 남포 일대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이처럼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일은 흔치 않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러시아와 근접한 라진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구에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해외로부터 중고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다.

다만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용신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참고: VOA, 2024. 6. 5)



UN제재 속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선박 자주 관찰돼

VOA는 2024년 8월 ‘최근 들어 중국 선박이 북한 영해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선박은 중국 선박의 ‘칭안9048호’이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화물선인 칭안9048호는 한반도 시각으로 26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후 한동안 머물렀다.

칭안9048호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해상 이동업무식별번호(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는데, 이는 칭안9048호의 운항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VOA는 8월 8일 중국 화물선인 아오후이68호가 북한 남포에서 포착됐으며, 15일에는 또 다른 중국 선박 자허188호가 남포의 조선소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 선박 2척이 남포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참고: VOA, 2024년 8월 27일)

남포항에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 들어서

북한 남포항의 유류 시설 밀집지역에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가 들어섰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항에서 지름 약 25m의 새로운 유류 탱크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상으로 탱크의 높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변 다른 탱크와 유사한 모양인 점으로 볼 때 10~20m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남포항에 있는 지름 18m짜리 유류 탱크 2개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 부지들은 3년 넘게 방치되었다

가 최근 들어서 유류 탱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에 포착된 새 유류 탱크는 북쪽 부지 2곳 중 1곳에 설치됐다.

VOA는 현재 북쪽과 남쪽의 남은 부지에서도 공사 흔적이 발견돼 조만간 추가로 2개의 탱크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남포항 일대에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VOA에 따르면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6개가 됐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000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참고, 사진 출처: 뉴스1, 2024. 7. 25)



코로나 시기 남포시 상황

2020년 초 북한이 코로나로 해상 봉쇄를 단행하면서 항만도시 남포에서의 일반적인 무역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만 북한은 '필요한 중요 물자만 들여오고 일체 모든 수입을 중단한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항로 무역의 유일한 통로로 남포항을 열어뒀다. 남포에서만은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무역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2021년 중순 어느 날 남포항이 몇몇 의진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완전 봉쇄됐다. 이에 남포항으로 들어온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운전자 30여 명이 즉시 와우도구역 체육촌에 격리됐다. 당시 남포시 비상방역위원회는 이 격리 조치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



북한 남포 수출입품검사검역소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참고, 사진 출처: 뉴스1, 2024. 7. 25)

라고 밝혔다. 그러나 격리된 30여 명 가운데 6명의 운전자들은 곧 남포시 보위부에 끌려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이 6명은 코로나 기간 국가 무역 짐배(화물선) 일부 선원들과 밀착해 밀무역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대가를 받고 규정된 방역 절차를 어겨 남포항에서 물건을 신속하게 이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남포시 보위부는 내적인 사건기록에 ‘국가의 방역 위기 속에 내부를 교란시키고 비루스(바이러스)균을 온 나라에 퍼뜨리려는 미제의 오랜 고용 간첩망이 드러났다’면서 운전자들이 마치 간첩 행위를 해온 것처럼 묘사했다.

남포시 보위부의 칼날은 코로나 봉쇄 시기 유일한 항로 무역의 통로인 남포항으로 밀무역 물건을 들여온 국가 무역 짐배 일부 선원들과 규정 방역 절차를 생략하고 물건을 내보낼 수 있게 협조한 남포항 검역장 방역원들에게까지 뻗었고, 이 사건은 당시 남포에 소문으로 퍼져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더욱이 당시 남포에서는 발열 증상을 보인 장애인들이 시설에 집단 격리됐다가 사망에 이르러 방역 원칙에 따라 공동 처리 구역에서 시신이 모두 불에 태워지는 사건도 발생해 주민 사회가 뒤숭숭했다.

장애인 사망자들의 시신을 처리한 성원들이 “부모들이 겉으로는 울고 있어도 속으로는 (장애인인 자식이) 잘 죽었다면서 코로나를 고마워할 것”이라는 망언을 노골적으로 해 주민들로부터 크나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를 기억하는 남포시의 한 주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을 내세운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도 가뜩이나 괴롭고 힘든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격리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자 남포시 주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때는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누가 방역 정책을 어겨 어디론가 끌려갔다더라, 누가 격리됐다가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며 “어떤 노인은 당시 상황을 두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를 연상시킨다면서 국가의 코로나 방역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고: 데일리NK, 2024. 05. 17)

김정은 남포조선소 방문, 핵잠수함 관련 작업 추진 가능성

북한의 노동신문은 2024년 2월 2일 남포조선소를 방문한 김 위원장이 “오늘날 나라의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해군 무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 행보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남포조선소는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에 위치한 서해 최대 조선소다. 과거 SLBM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023년 12월에도 이곳에서 북한이 ‘엄폐공간’을 건설 중이라며, 미국의 위성 감시를 피해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바지선 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동해의 신포뿐 아니라 남포에서도 핵잠수함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했던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 정형(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당시 선박 관련 과제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 매체 셋카이닛포(世界日報)도 “북한이 남포 부근 도크에서 몰래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SLBM에 이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까지 시험발사하는 등 해상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북한은 앞으로도 수중 발사 소형 SLBM과 SLCM 발사 시험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 아시아경제, 2024. 02. 02)



남포조선소를 방문 중인 김정은, 사진출처: 연합뉴스

38노스 “북한 남포 석유화학 시설에 새로운 부두 건설”

2024년 초 북한의 주요 수출입 항구인 서해 남포항의 석유화학 시설에 새로운 부두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월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남포항을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남포항 석유화학 시설에 있는 기존 부두 4개 옆에 새로운 부두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포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수 개가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장 움직임이 포착



2015년 촬영된 북한 남포항
전경/ 사진출처: 연합뉴스

되고 있다. 이는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 당국이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매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작년 상반기에만 남포 유류 항구에 유조선 42척이 출입하면서 최대 126만 배럴의 유류를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고: MBC, 2024. 01. 26)

부산에서 담배재료 싣고 남포로 향하던 선박 해경에 검거

담배 재료 170여t을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고 북한 영해를 향해한 선장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경은 담배 재료를 배에 싣고 밀반출하려던 40대 선주와 60대 선장, 40대 선원을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23년 12월 27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1천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이후 담뱃잎,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을 배에 실은 뒤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부산항만공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국적 화주와 SNS(소셜미디어)로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상태였고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이던 중국 화주에게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 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향했다. 이들의 범행은 북한 쪽으로 향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선박 내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UN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화물을 불법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2023. 12. 27) 

남포의 각종 개발 소식

남포에 항공구락부 건설



남포시에 준공된 항공구락부 전경 (사진출처: 조선신보, 통일뉴스)

북한 남포시에서 항공구락부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023년 10월 31일 보도했다.신문은 “모형항공기제작실과 육체훈련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이 그뿐하게(충분하게) 갖추어진 남포시항공구락부가 건설됨으로써 시의 항공체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보다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이 마련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2023년 10월 27일에 진행된 항공구락부 준공식에서 남포시인민위원회 송승철 위원장은 준공사를 통해 “항공구락부의 모든 일꾼들과 감독, 선수, 종업원들이 우리식의 항공체육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며 훈련열의를 고조시켜 경기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쳐나갈” 데 대하여 언급했다.신문은 “준공식이 끝난 후 모형항공기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해북도에 항공구락부가 10월 9일 새로 건설되었으며, 북한에는 평양의 미림항공구락부(2016년 7월 준공)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항공체육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구락부가 꾸려져 있다.

(참고: 통일뉴스, 2023. 10. 31)

남포시혁명사적관 개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3년 12월 4일 "남포시혁명사적관이 훌륭히 꾸려져 개관됐다"면서 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한 영도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으며 많은 혁명사적 자료들과 혁명사적 물들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3. 12. 04)

남포시 품질분석소 개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3년 12월 11일 "남포시에서 품질분석소를 새로 일떠세웠다"며 "제품들에 대한 품질분석을 현대화, 과학화하고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3. 12. 11)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농장 주택 건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5월 19일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면서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제도가 제일이다"라고 선전했다. (참고: 뉴스1, 2024. 05. 19)

남포시 과학도서관 개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6월 1일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기여할 또 하나의 지역적 거점이 일떠섰다"라면서 "남포시 과학기술 도서관 준공식이 지난 5월 31일 현지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4. 06. 01)

남포시 학생신발공장 건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6월 5일 "당 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남포시에서 학생신발공장을 새로 건설했다"라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4. 06. 05)

남포특별시 안석간석지에 수문 건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8월 12일 남포시 안석간석지 소봉룡천제수문을 건설해 지난 11일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참고: 뉴스1, 2024년 8월 12일)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농장들에 새집 건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9월 11일 "남포시 항구구역 지사농장, 우산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라면서 "농촌 고유의 특색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전했다. (참고: 뉴스1, 2024년 9월 11일) 🐟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실물 잡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